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3 Q
2021
vol.24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벤처투자모태조합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해외 VC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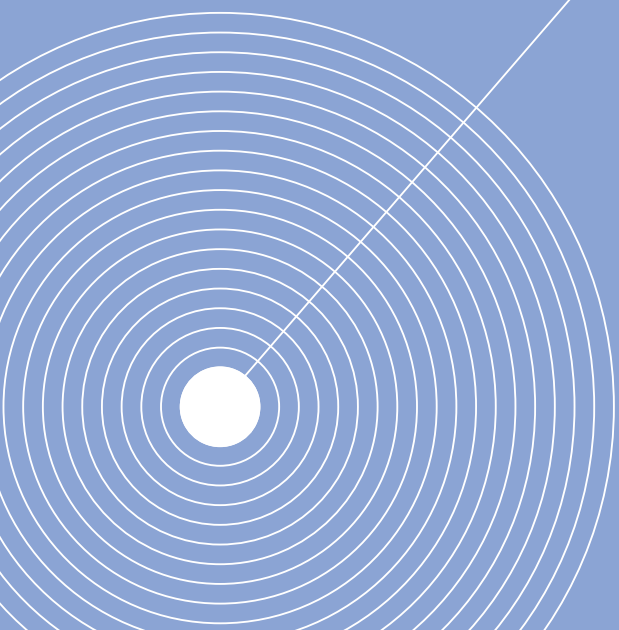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3Q 2021 VOL. 24

- 04 ←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 18 ←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 36 ←  벤처투자모태조합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 48 ←  해외 VC
시장 동향
- 90 ←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이영민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KVIC**
Market Watch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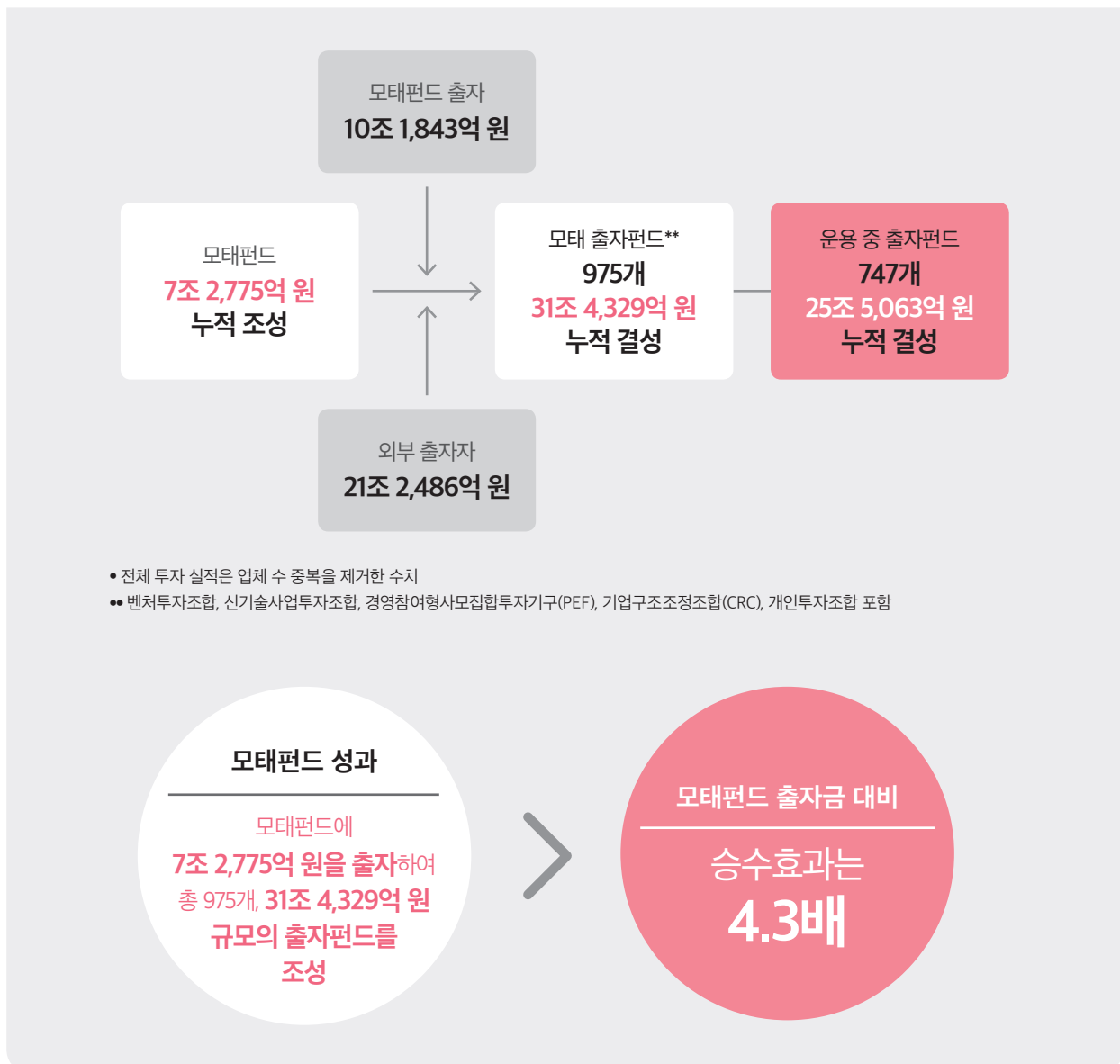
결성 /
투자 /
회수 동향 /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3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모태펀드 개요

2021년 9월 말 현재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7조 2,775억 원이며, 21조 2,486억 원의 외부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31조 4,329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747개, 25조 5,063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975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8,088개사*에 총 24조 1,225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모태 출자펀드 결성

♣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1년 7~9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58개, 1조 5,056억 원 규모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코로나 2021 이노베이션 투자조합(GP:코오롱인베스트먼트)'로 1,215억 원 규모이다.

표 1 2021년 3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버팀목	나우원코로나펀드	벤처투자조합	나우아이비캐피탈	300	125	7.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대한민국 라구나 비대면 펀드 제4호	벤처투자조합	라구나인베스트먼트	500	180	7.12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티포메가존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티인베스트먼트	103	40	7.1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비대면펀드	벤처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280	100	7.20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코리아 컴퍼니케이 언택트펀드	벤처투자조합	컴퍼니케이파트너스	900	280	7.2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씨제이-대성 메타버스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150	60	8.5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비엔케이 뉴딜 펀드	벤처투자조합	비엔케이벤처투자	350	140	8.6
중진	버팀목	비엔케이티2021 대한민국버팀목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티인베스트먼트	375	130	8.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수인베스트먼트 언택트 제이커브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400	120	8.2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하나-케이앤 그린뉴딜1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앤투자파트너스	225	90	8.2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CKD 바이오-헬스케어 1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씨케이디창업투자	500	200	9.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DGB디지털그린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하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300	110	9.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에스지아이(SGI) 스마트코리아 그린뉴딜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300	120	9.7
중진	버팀목	2021 서울-캡스톤 플랫폼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캡스톤파트너스	300	150	9.7
중진	여성기업	디지비(DGB)드림걸스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하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60	120	9.7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그린뉴딜창업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230	88	9.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대한민국 KB퓨처나인-세종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세종벤처파트너스	130	50	9.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서울투자 비대면 펀드	벤처투자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	125	50	9.1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문샷게임콘텐츠펀드	벤처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390	150	9.1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제이티비씨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엔브이씨파트너스	106	30	9.1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그린뉴딜 제피러스랩 혁신벤처펀드 제1호	벤처투자조합	제피러스랩	100	40	9.17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A 언택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에이벤처스	535	180	9.29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버팀목	심본 뉴첼린지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심본투자파트너스	150	75	9.29
중진	버팀목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벤처투자조합	하나벤처스	450	200	9.2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대한민국 KT 넥스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퀵벤처스	160	60	9.2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STREAM-WE인택트펀드3호	벤처투자조합	위벤처스	125	50	9.29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신세계포커스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시그나이트파트너스	300	100	9.30
엔젤	대학창업	포스텍 홀딩스 6호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50	20	9.13
엔젤	대학창업	고려대 글로벌 기술혁신 개인투자조합 제1호	개인투자조합	고려대학교기술지주	40	24	9.14
혁신모험	창업초기 루키	비에이피제4호 스텝업팩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비에이파트너스	200	120	7.13
혁신모험	창업초기 일반	이에스8호스타트업펀드	벤처투자조합	이에스인베스터	156	77	7.20
혁신모험	창업초기	케이티창업초기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KT인베스트먼트	200	100	8.26
혁신모험	창업초기	인포뱅크 개인투자조합 3호	개인투자조합	인포뱅크	70	30	8.27
혁신모험	창업초기	스타트업 밸류업 CNVP 2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씨엔벤처파트너스	53	25	9.3
혁신모험	창업초기	뉴패러다임혁신성장제5호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111	25	9.6
혁신모험	창업초기 루키	대전스타트업파크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대덕벤처파트너스	145	80	9.7
혁신모험	창업초기	코사인개인투자조합 4호	개인투자조합	강수현	54	30	9.27
혁신모험	창업초기	킹슬리 엔젤3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킹슬리벤처스	60	30	9.27
혁신모험	DNA,BIG3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코오롱인베스트먼트	1,215	400	9.29
혁신모험	창업초기 일반	블루포인트 디스커버리 벤처투자조합2호	벤처투자조합	블루포인트파트너스	96	48	9.29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케이런6호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런벤처스	334	170	8.13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500	250	8.17
문화	모험콘텐츠	슬래어컬처플러스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슬래어파트너스	243	170	7.5
문화	모험콘텐츠	현대-유니온모험콘텐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350	210	8.13
문화	모험콘텐츠	케이씨드림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씨벤처스	200	140	9.7
문화	방송 OTT 영상콘텐츠	뉴미디어콘텐츠펀드	벤처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152	90	9.14
문화	모험콘텐츠	베이비샤크넥스트유니콘IP펀드	벤처투자조합	스마트스터디벤처스	347	180	9.16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가이아영화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가이아벤처파트너스	131	76	8.18
영화	한국영화 메인투자	슬래어메인 영화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슬래어파트너스	300	210	9.1
관광	관광기업육성	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제3호	벤처투자조합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650	450	9.29
과기정통	실감 콘텐츠	스마일게이트 엑스알 콘텐츠펀드2호	벤처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470	280	9.29
연구개발특구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비엔케이-케이엔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제1호	벤처투자조합	케이엔투자파트너스	190	95	9.3
교육	대학창업	고려대 대학창업 제2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고려대학교기술지주	50	35	8.9
교육	대학창업	한밭대학교-CNVP 대학창업펀드 1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한밭대학교기술지주식회사	11	8	8.13
교육	대학창업	전북대학교 제2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특허법인지원	27	16	8.24
교육	대학창업	지스타트업(G-Startup) 대학창업 뉴딜펀드	개인투자조합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40	25	9.9
환경	미래환경산업	디쓰리 미래환경 ECO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디쓰리주빌리파트너스	215	150	8.26
환경	미래환경산업	브이엘미래환경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브이엘인베스트먼트	353	150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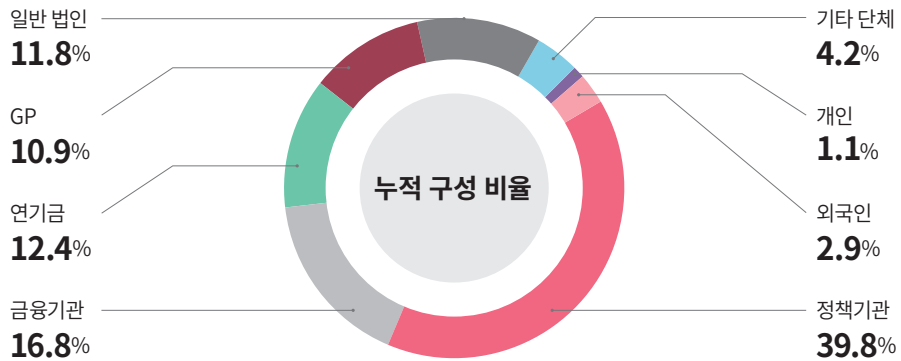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1년 9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2], [표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2조 5,205억 원(39.8%)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5조 2,744억 원(16.8%), 연기금 3조 8,951억 원(12.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에는 정책기관 다음으로, 일반 법인(5,318억 원), 금융기관(4,77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1.09	12,717	4,775	2,525	2,829	5,318	657	538	0	29,358
누적	125,205	52,744	38,951	34,260	37,205	13,220	3,413	9,034	314,329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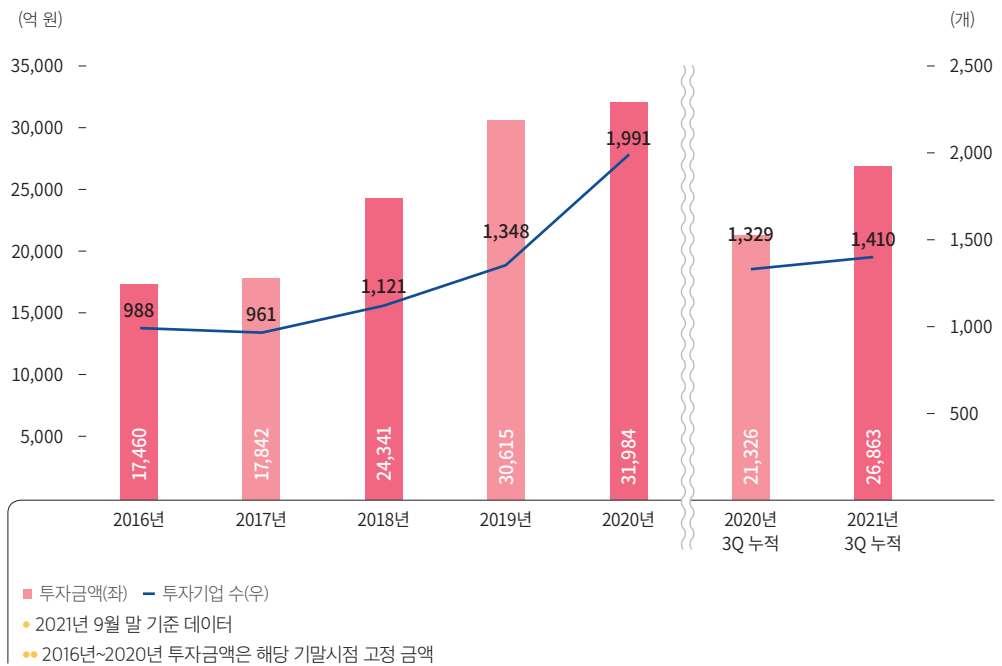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투자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1년 3분기까지 407개 모태 출자펀드가 1,410개 기업(중복 제외)에 총 2조 6,863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기준으로 26%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 6.1% 증가했다.

그림 3 최근 5년간 및 2021년 3분기 누적 투자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1년 3분기까지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 당 1.5개 펀드가 19.1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23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46억 원 증가했으며, 주로 소수의 펀드에서 집중 투자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금액 상위권 기업들의 업종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 2021년 3분기 누적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의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2	500
2	에스원피앤피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1	271
3	시아스	기타	음식료	1	260
4	인플루엔셜	ICT 서비스	소프트웨어	1	250
5	○○○○○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1	229
6	○○○○○	전기/기계/장비	일반기계	2	180
7	크몽	ICT 서비스	정보 서비스	3	167
8	오픈엠티테크놀로지	ICT 제조	반도체/전자부품	4	160
9	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	전기/기계/장비	전기장비	4	160
10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바이오/의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2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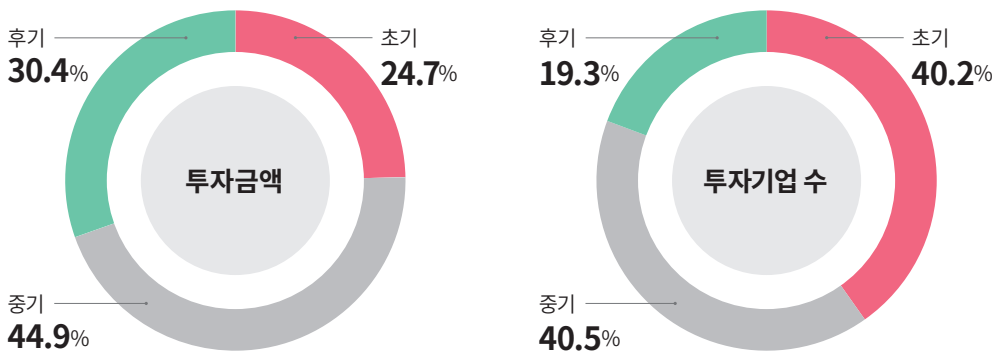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 업력별 신규 투자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기업에는 6,642억 원(24.7%),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 기업에 1조 2,064억 원(44.9%),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 기업에 8,157억 원(30.4%)이 투자되었다.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 기업 571개사(40.2%), 중기 기업 576개사(40.5%), 후기 기업 274개사(19.3%) 순이다. 3분기에는 투자기업 수가 약 492개가 늘어나며, 투자금액 또한 직전 분기 대비 9,989억 원 증가한 2조 6,863억 원을 기록했다. 전 업력별 모두 투자기업 수와 투자금액의 증가율은 직전 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전체 대비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투자금액은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기 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기업 수는 9개가 증가한 반면, 투자금액은 오히려 861억 원 감소한 6,642억 원을 나타내면서, 기업당 투자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투자기업 수 1,410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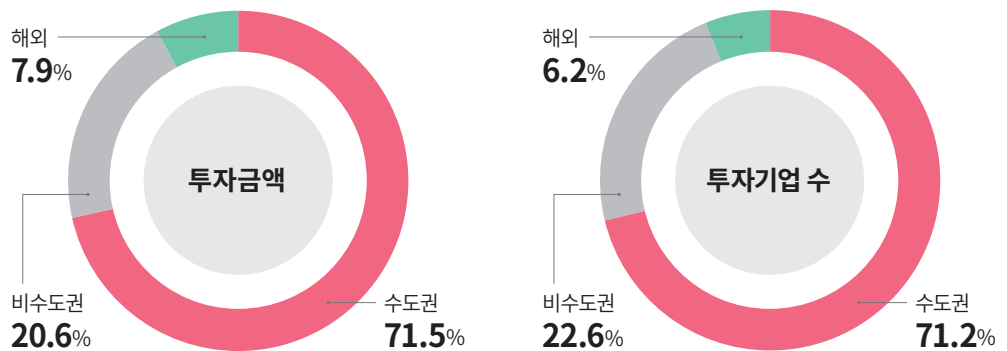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 투자가 1조 9,209억 원(71.5%)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5,544억 원(20.6%),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2,110억 원(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금액 증가분은 주로 국내 투자 중심으로 늘어났다. 해외 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오히려 457억 원 줄어들면서, 투자금액 기준 비중이 7.9%로 감소했다.

수도권 내 투자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2.5% 증가한 5,677억 원이 224개 기업에 투자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5대 광역시의 투자금액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대전의 경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직전 분기 대비 826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3분기에 5대 광역시에 투자된 금액 중 약 68%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의 당기 투자금액은 1,711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지방은 87개 기업에 2,110억 원을 투자되며, 전체 지역 내에서 약 7.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198억 원을 기록한 반면 경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한 307억 원을 기록했다.

그림 5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투자기업 수 1,410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 구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여전히 바이오/의료 업종으로 총 6,577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4.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ICT 서비스 6,324억 원(23.5%), 유통/서비스 4,359억 원(16.2%) 순으로 기존의 순위가 변동이 없었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 서비스(28.4%), 유통/서비스(18.6%), 바이오/의료(17.8%) 순으로 전분기에 이어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바이오/의료의 단위 기업당 투자금액 또한 24.2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그림 6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바이오/의료	24.5
2	ICT 서비스	23.5
3	유통/서비스	16.2
4	전기/기계/장비	10.2
5	기타	7.7
6	영상/공연/음반	5.6
7	ICT 제조	4.3
8	화학/소재	4.0
9	게임	3.9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8.4
2	유통/서비스	18.6
3	바이오/의료	17.8
4	전기/기계/장비	8.9
5	영상/공연/음반	8.1
6	기타	6.9
7	ICT 제조	4.3
8	화학/소재	3.5
9	게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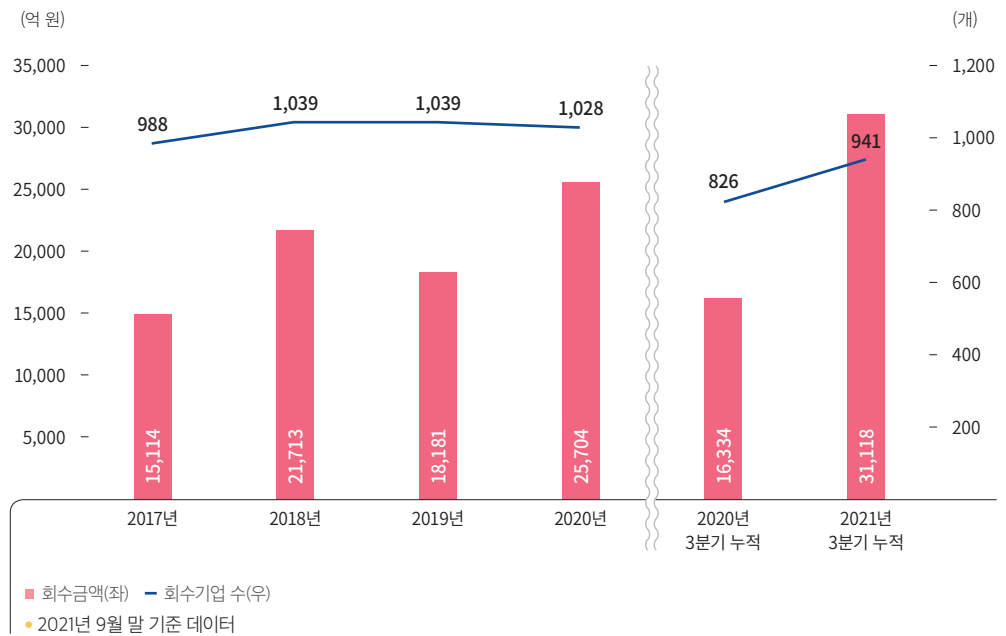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회수

♣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1년 3분기 누적기준으로 421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941개 기업을 통해 총 3조 1,118억 원(회수원금 8,358억 원, 회수수익 2조 2,760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3.7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90.5%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13.9% 증가했다.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21년 3분기 누적 회수 추이



♣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1년 3분기에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2,533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138.9배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 서비스 25.3%(3,465억 원), 의료기기 21.5%(2,936억 원), 전문 서비스 12.5%(1,702억 원), 소프트웨어 12.4%(1,690억 원), 의료용 물질/의약품 9.6%(1,310억 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1년 3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말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은 30개사이다.

표 4 ____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실리콘투	코스닥	2002.01	2021.09	450	2,907	화장품 유통
에스앤디	코스닥	1998.12	2021.09	286	881	일반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소재
프롬바이오	코스닥	2006.06	2021.09	432	2,746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바이오플러스	코스닥	2003.05	2021.09	441	4,514	생체재료 개질 기술을 사용한 히알루론산(HA) 기반 더말필러, 유착방지제 및 그 응용제품
와이엠텍	코스닥	2004.09	2021.09	168	3,182	계전기(EV Relay)
에이비온	코스닥	2007.04	2021.09	388	2,394	표적 항암제, 바이오 베타 신약
바이젠셀	코스닥	2013.02	2021.08	994	5,612	면역세포치료제 (면역항암제, 면역조절치료제 등)
딥노이드	코스닥	2008.02	2021.08	126	2,163	의료 인공지능플랫폼, 인공지능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
엠로	코스닥	2000.03	2021.08	230	1,536	SCM구축 및 용역, 라이선스, 기술료, 클라우드사용료
원티드랩	코스닥	2015.04	2021.08	256	2,140	채용 플랫폼
크래프톤	유가증권	2007.03	2021.08	43,098	221,997	게임 소프트웨어
맥스트	코스닥	2010.10	2021.07	150	3,328	AR 개발 플랫폼/AR솔루션
큐라클	코스닥	2016.05	2021.07	533	4,094	혈관질환치료제 등
에스디바이오센서	유가증권	2010.12	2021.07	7,764	62,996	STANDARD Q 항원/항체 진단키트(COVID-19 진단키트)
오비고	코스닥	2003.03	2021.07	348	2,336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표 5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연월	진행 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아스플로	코스닥	2001. 11. 28	상장예정	반도체 공정설비용 배관부품
차백신연구소	코스닥	2000. 06. 09	상장예정	면역증가제 기반 차세대 백신 및 면역치료제 개발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코스닥	2005. 04. 07	상장예정	Scrubber, Trap, NPS, 백연제거장치
엔캠	코스닥	2012. 01. 26	상장예정	전해액, 기타 화학물, 전자재료, 축전지
지니너스	코스닥	2018. 04. 20	상장예정	유전자 분석진단 서비스
비트나인	코스닥	2013. 10. 28	상장예정	그래프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연구
디어유	코스닥	2017. 07. 04	상장예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트웜	코스닥	2010. 01. 21	심사승인	공장자동화 솔루션
마인즈랩	코스닥	2014. 01. 08	심사승인	인공지능 플랫폼
알비더블유	코스닥	2010. 03. 05	심사승인	연예매니지먼트 및 음반제작
바이옴트로	코스닥	2000. 07. 06	심사승인	FA(공장 자동화)설비, 계측 장비
애드바이오텍	코스닥	2000. 06. 16	심사승인	보조사료 및 의약품 개발 및 제조
래몽라인	코스닥	2007. 03. 02	심사승인	디지털컨텐츠 제작 및 유통, 연예 매니지먼트 및 이벤트
틀젠	코스닥	1999. 10. 08	심사승인	유전자 가위
오토앤	코스닥	2012. 01. 31	심사승인	자동차 용품 제조/유통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코스닥	2002. 04. 16	심사 중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오아	코스닥	2014. 01. 29	심사 중	전자제품(중고휴대폰, 휴대용선풍기, 가습기, 스피커), 약세사리 도매
에버스핀	코스닥	2014. 02. 28	심사 중	Eversafe(모바일보안)
카테노이드	코스닥	2011. 07. 05	심사 중	온라인 멀티미디어 플랫폼
이지트록닉스	코스닥	2008. 11. 28	심사 중	통신용 전원장치, EV용 전기변환장치
퓨런티어	코스닥	2009. 04. 24	심사 중	검사 자동화설비 제조
노을	코스닥	2015. 12. 04	심사 중	차세대 체외진단키트(말라리아 등) 개발
보로노이	코스닥	2015. 02. 24	심사 중	신약개발
공구우먼	코스닥	2006. 11. 02	심사 중	여성용 의류 온라인 판매업
비씨엔씨	코스닥	2003. 06. 23	심사 중	반도체부품, 반도체장비부품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	2007. 10. 25	심사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
케이옥션	코스닥	2005. 09. 15	심사 중	미술품 경매
아셈스	코스닥	2003. 06. 13	심사 중	친환경 접착 필름 및 장비
모아데이터	코스닥	2014. 03. 28	심사 중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장애예측 플랫폼
바이오에프디엔씨	코스닥	2005. 11. 11	심사 중	식물세포(물질생산, 화장품소재, 식품소재), Growth Factors(화장품소재)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해당 보고서는
반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0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벤치마크란?

펀드 운용성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성과를 비교대상 자산의 성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벤치마크’란 펀드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성과정보로 전체 시장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펀드 그룹의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준지표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만약 특정 기간의 펀드 수익률이 10%일 때,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20% 상승했다면 펀드에 투자한 것이 상장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펀드 수익률이 -5%지만 상장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0%라면 펀드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펀드의 성과가 좋고 나쁨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비교대상 자산의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

한국벤처투자의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우리나라 벤처펀드의 약 66%(2020년 12월 말 기준)에 대한 누적 성과정보가 집계되어 있는 모태펀드 DB를 기반으로, 벤처펀드 성과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이다.

♣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구성

- ①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 ② PME 벤치마크(KOSPI / KOSDAQ 상장 시장과의 수익률 비교지표)
- ③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 ④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 벤치마크의 활용

벤처펀드 수익성의 기준 지표가 되는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다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개별 벤처펀드와 운용사의 성과를 비교/평가
- ② 투자 목표 수익률, 자산구성 등 자산 배분 계획에 참고
- ③ 정책 자료 및 연구 목적

♣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작성 프로세스

벤치마크 성과데이터는 각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가 제출하는 반기 재무제표, 연간 감사보고서, 월간 보고 자료, 반기 펀드 투자자산 가치평가, 펀드 출자/배분 정보* 등을 기반으로 반기마다 산출한다.

* 성과보수 제외, 세전 기준

각 운용사 제출 자료는 제출 시점에 수시로 집계하여 DB에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오류를 재검증한다.

반기 가치평가 자료 반영으로 인해 벤치마크는 기준 시점에서 한 반기 시차(Time Lag)를 두고 발표한다. 벤치마크 발표 이후 펀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추가/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벤치마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다음 반기에 반영한다. 또한, 벤치마크 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제공정보 범위와 형태 등 구성 항목 역시 변동될 수 있다.

벤치마크 측정의 제한사항

펀드 투자자산 가치를 반기 주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성, 적시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펀드 결성 후 최초 2~3년 이내 시점은 벤처펀드의 특성(J-curve 효과¹)상 의미 있는 수익률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 J-Curve 효과 : 투자 수익이 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초기에는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벤처 투자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표 1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25.94%	17.95%	15.50%	14.91%	11.69%	10.54%
(벤처지수)	28.08%	19.23%	16.36%	16.29%	12.90%	11.67%
(문화지수)	7.83%	7.85%	8.88%	5.87%	3.94%	3.08%

- 2020.11.~2020.12.31. 기간(1년)의 벤처펀드 수익률이 25.94%임을 의미한다.
- 전체기간 수익률은 모태펀드의 결성직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 문화지수는 모태펀드 문화, 영화, 과기정통계정에 속한 모태 출자펀드의 수익률이며, 나머지 계정은 벤처지수에 속함
(문화, 영화계정의 경우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로, 기업 지분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 벤처투자자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함)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여 산출한 통합 수익률(Pooled IRR)이다. 또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펀드의 출자, 배분, 가치변동을 고려한 금액가중 연환산 수익률(end-to-end IRR)*을 반기별로 산출한다. (*[별첨1] 참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펀드의 현금흐름은 해당일자가 속한 분기의 중간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g. 2017. 3. 1. 펀드출자 → 2017. 2. 15. 펀드출자 / 2016. 7. 5. 수익배분 → 2016. 8. 15. 수익배분으로 가정)

기간수익률은 장기간의 벤처펀드 수익률 변동 패턴을 보여준다. 대부분 벤처펀드의 존속기간은 7년~10년이므로, 일반적인 벤처펀드의 수익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7년, 10년 기간의 수익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PME(Public Market Equivalent) 벤치마크

표 2 2020년 12월 말 기준 PME벤치마크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OSPI PME (A)	9.91%	0.99%	4.66%	3.42%	2.71%	4.07%
KOSDAQ PME (B)	26.26%	4.15%	5.90%	8.22%	6.18%	5.18%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25.94%	17.95%	15.50%	14.91%	11.69%	10.54%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16.03%p	16.96%p	10.84%p	11.49%p	8.98%p	6.47%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0.32%p	13.80%p	9.60%p	6.69%p**	5.51%p	5.36%p

• 2020. 1. 1.~2020. 12. 31. 기간(1년) 동안 벤처펀드에 출자/배분했던 동일금액을 동일시점에 KOSPI 지수에 투자/회수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9.91%임을 의미한다.

•• 2014. 1. 1.~2020. 12. 31. 기간(7년) 동안 벤처펀드가 코스닥시장 PME 대비 6.69%p의 초과수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PME 벤치마크는 벤처펀드의 현금흐름과 가치변동, 상장 주가지수의 등락을 반영한 것으로,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한 금액만큼 상장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KOSPI, KOSDAQ 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과는 다르다).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1

표 3 2020년 12월 말 기준 결성연도별 투자수익률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원)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5.68%	17.80%	4.95%	0.60%	22.87%	-12.02%
2005년	13	4,810	-0.93%	3.26%	0.33%	-6.89%	16.17%	-25.27%
2006년	18	4,790	2.66%	4.71%	0.42%	-9.30%	37.30%	-16.80%
2007년	31	7,501	2.87%	4.99%	1.25%	-0.72%	34.26%	-28.57%
2008년	25	5,717	11.62%	9.64%	0.35%	-3.87%	61.94%	-17.60%
2009년	61	14,383	4.57%	6.46%	0.73%	-5.11%	42.71%	-23.26%
2010년	31	8,281	4.43%	12.29%	1.45%	-7.51%	23.94%	-28.52%
2011년	38	15,427	9.24%	10.70%	4.13%	-5.37%	60.98%	-14.06%
2012년	17	5,166	13.32%	16.73%	11.29%	3.76%	25.85%	-32.42%
2013년	41	13,142	16.39%	18.59%	10.80%	4.26%	44.47%	-11.68%
2014년	54	21,476	17.82%	22.14%	9.81%	5.15%	106.74%	-10.58%
2015년	61	19,474	11.56%	16.93%	9.80%	-0.54%	35.21%	-20.03%
2016년	69	23,214	20.65%	25.59%	12.12%	0.16%	54.69%	-15.71%
2017년	98	34,402	16.07%	20.00%	13.85%	3.31%	50.70%	-19.74%
2018년	84	29,849	18.91%	12.48%	3.98%	-1.91%	NM	NM
2019년	93	26,912	1.33%	3.09%	-3.59%	-7.64%	NM	NM
2020년	114	34,777	-4.49%	-2.60%	-7.17%	-10.91%	NM	NM

● 2004년에 결성했던 모든 펀드의 2020년 12월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이 5.68%임을 의미한다.

●● NM(not meaningful) : 투자 2~3년 이내 시점 최대/최소값은 극단치로 유의미하지 않음

●●● 상위/하위 25% IRR : 결성연도별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4분위수로 나누었을 때, 각 상위/하위 25%에 위치한 펀드의 수익률이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4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당시 결성한 전체펀드(Peer Group)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에 위치해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시장 전체를 고려한 펀드/운용사의 상대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2

표 4 2020년 12월 말 기준 결성연도별 투자배수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원)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1.35	1.59	1.30	1.02	2.53	0.37
2005년	13	4,810	0.96	1.30	1.02	0.73	1.49	0.23
2006년	18	4,790	1.12	1.29	1.07	0.57	1.85	0.28
2007년	31	7,501	1.13	1.21	1.05	0.97	2.51	0.12
2008년	25	5,717	2.06	1.41	1.01	0.77	8.73	0.44
2009년	61	14,383	1.23	1.33	1.05	0.74	4.73	0.39
2010년	31	8,281	1.25	1.54	1.06	0.67	2.98	0.11
2011년	38	15,427	1.53	1.44	1.11	0.71	4.54	0.37
2012년	17	5,166	1.75	2.13	1.61	1.26	3.02	0.08
2013년	41	13,142	1.90	1.94	1.48	1.18	4.59	0.44
2014년	54	21,476	1.93	2.28	1.43	1.21	6.45	0.50
2015년	61	19,474	1.52	1.83	1.37	0.97	4.05	0.00
2016년	69	23,214	1.73	1.95	1.36	1.01	5.83	0.54
2017년	98	34,402	1.38	1.50	1.31	1.08	2.83	0.72
2018년	84	29,849	1.30	1.20	1.08	0.98	2.69	0.67
2019년	93	26,912	1.01	1.03	0.97	0.94	1.56	0.61
2020년	114	34,777	0.99	0.99	0.98	0.97	1.25	0.14

* 2004년에 결성하여 1원을 투자한 펀드들이 2020년 12월 말 현재 1.35원의 수익을 거둔 상태임을 의미한다.

** 상위/하위 25% 투자배수는 결성연도별 펀드들을 투자배수가 높은(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 상위/하위 25%의 위치에 해당하는 특정 펀드의 투자배수다(상위/하위 25% 이내 모든 펀드의 투자배수가 아니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4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3

표 5 2020년 12월 말 기준 결성연도별 TVPI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DPI	RVPI	TVPI
2004년	6	1,536	100.00%	1.35	0.00	1.35
2005년	13	4,810	94.66%	0.96	0.00	0.96
2006년	18	4,790	95.41%	1.12	0.00	1.12
2007년	31	7,501	92.37%	1.13	0.00	1.13
2008년	25	5,717	98.60%	1.53	0.53	2.06
2009년	61	14,383	93.77%	1.22	0.01	1.23
2010년	31	8,281	97.02%	1.16	0.09	1.25
2011년	38	15,427	93.95%	1.14	0.39	1.53
2012년	17	5,166	98.39%	1.34	0.41	1.75
2013년	41	13,142	97.25%	1.16	0.74	1.90
2014년	54	21,476	95.27%	0.89	1.04	1.93
2015년	61	19,474	96.20%	0.42	1.10	1.52
2016년	69	23,214	94.87%	0.44	1.29	1.73
2017년	98	34,402	93.11%	0.11	1.26	1.38
2018년	84	29,849	86.62%	0.03	1.26	1.30
2019년	93	26,912	62.53%	0.01	1.00	1.01
2020년	114	34,777	32.43%	0.00	0.99	0.99

- DPI (Distribution to Paid-In) :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타냄
- RVPI (Residual Value to Paid-In) :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펀드에 남은 잔여자산 가치를 나타냄
- TVPI (Total Value to Paid-In) : 납입액 대비 총 가치 (TVPI = DPI + RVPI)

결성연도별 벤처펀드의 총 DPI, RVPI, TVPI를 산출한다.

♣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표 6 2020년 12월 말 기준 결성규모별 투자수익률

펀드 결성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전체펀드 (2005.6~2020.12)	854	270,857	82.93%	10.54%	14.09%	3.16%	-5.40%
1,000억 이상	47	68,700	83.34%	15.80%	25.48%	16.17%	0.29%
500억~1,000억 미만	106	67,317	80.25%	12.46%	13.89%	7.91%	0.67%
300억~500억 미만	147	51,482	84.00%	9.94%	16.40%	5.45%	-2.05%
200억~300억 미만	180	40,298	82.58%	7.33%	12.37%	1.16%	-6.52%
100억~200억 미만	301	39,419	86.95%	5.63%	10.61%	0.76%	-5.41%
100억 미만	73	3,641	70.13%	5.85%	10.45%	-3.38%	-9.19%

표 7 2020년 12월 말 기준 결성규모별 투자배수

펀드 결성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전체펀드 (2005.6~2020.12)	854	270,857	82.93%	1.45	1.43	1.08	0.96
1,000억 이상	47	68,700	83.34%	1.65	2.00	1.44	1.00
500억~1,000억 미만	106	67,317	80.25%	1.51	1.42	1.19	1.01
300억~500억 미만	147	51,482	84.00%	1.38	1.50	1.16	0.99
200억~300억 미만	180	40,298	82.58%	1.31	1.34	1.03	0.94
100억~200억 미만	301	39,419	86.95%	1.26	1.37	1.02	0.92
100억 미만	73	3,641	70.13%	1.26	1.27	0.98	0.94

각 벤처펀드의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과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펀드 규모별로 구분한 4분위수, 중위값을 산출한다.

[참고] 벤치마크별 활용예시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활용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개별 펀드(운용사별/펀드별)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보상체계와 연계하거나,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운용사 선정 및 펀드 위험관리 등 활용)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역사적 추이 분석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거시동향,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책 및 연구목적 활용)
- 벤처펀드 출자/투자자가 벤처펀드 투자 수익과 위험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Case 1.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벤처펀드에 투자하려고 할 때, 무위험자산 대비 국내 벤처펀드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과거 기간에 따른 국내 벤처펀드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비교하여, 국내 벤처펀드 투자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시 _____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4.13%	7.52%	9.19%	8.12%	7.78%	7.53%

Case 2. 벤처펀드를 위탁운용할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과거 펀드 운용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기간별 수익률을 참고하여, 각 운용사의 운용기간에 따른 평균적인 수익률 지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Case 3. 정책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국내외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을 활용하여 외국 벤처투자 시장이나 출자기관과의 수익률 비교가 가능하다.

• 활용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벤치마크 결과와는 다른 가상의 수치를 사용함

예시 _____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4.13%	7.52%	9.19%	7.78%
美 벤처펀드 벤치마크(기간수익률)	11.08%	8.03%	15.30%	9.04%

♣ PME 벤치마크 활용

- 상장시장과 벤처펀드 수익률의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PME의 수익률 차이로 상장시장 대비 벤처펀드의 초과수익을 가늠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시 상장 투자자산 대비 벤처펀드 투자 수익률의 목표 수준을 가늠해보고 싶은 경우

→ PME 벤치마크는 국내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금액만큼 상장시장에 투자/회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시한다. PME 수익률* 정보를 통해 벤처펀드의 KOSPI / KOSDAQ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파악하고, 장단기 자산 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 PME의 계산은 [별첨2]의 설명 참조

예시 _____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OSPI PME (A)	9.60%	8.87%	4.54%	3.99%	6.19%	5.31%
KOSDAQ PME (B)	8.06%	7.24%	12.11%	6.76%	7.42%	6.75%
국내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4.13%	7.52%	9.19%	8.12%	7.78%	7.53%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5.47%p	-1.35%p	4.65%p	4.13%p	1.59%p	2.22%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3.93%p	0.28%p	-2.92%p	1.36%p	0.36%p	0.78%p

♣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활용

- 특정시점에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 대비 분배가 진행된 정도, 결성연도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투자배수는 잔여자산이 현재 가치평가금액 수준으로 회수되어 분배 가능할 때, 투자금의 몇 배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향후 벤처펀드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수익을 파악 가능하다.
- 투자배수는 신속하고 쉽게 운용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투자를 비교해볼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성과평가 과정에서 각각 결성연도가 다른 2개 펀드(ex 2010년 / 2013년)의 수익률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할 때, 각 펀드가 해당 결성연도에 생긴 평균적인 벤처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결성연도별 벤치마크는 결성연도별 국내 벤처펀드의 수익성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상위 25%, 중위값, 하위 25%, 최대값, 최소값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결성연도를 고려한 상대적 성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 파악 가능하므로, 향후 잠재적인 회수가 가능 금액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의 경우 동일한 5%의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라 하더라도, 2010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2.20%, 2013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11.22%이기 때문에, 2010년에 5%를 달성한 펀드가 당시 시장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_____

결성연도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최대값	최소값
2010년	3.84%	9.57%	2.20%	-3.39%	22.58%	-32.87%
2013년	19.88%	23.23%	11.22%	1.34%	54.70%	-11.68%

결성연도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10년	1.18	1.31	1.06	0.80	2.53	0.04
2013년	1.65	1.69	1.38	1.04	3.32	0.59

♣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활용

- 펀드의 결성규모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출자를 기획과정에서, 출자규모에 따른 수익률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

→ 결성규모별 벤치마크는 벤처펀드 결성규모별 수익성 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상위 25%, 중위값, 하위 25%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펀드 출자 예상 규모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로 살펴보면, 1,000억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은 12.56%로 100억~200억 미만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 3.94%보다 높으므로, 1,000억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펀드 결성규모	Pooled IRR	상위 25% IRR	중위값	하위 25% IRR
1,000억 이상	12.56%	20.91%	5.53%	-3.69%
100억~200억 미만	3.94%	7.73%	0.00%	-6.99%

펀드 결성규모	전체 투자배수	상위 25% 투자배수	중위값	하위 25% 투자배수
1,000억 이상	1.42	1.65	1.19	0.98
100억~200억 미만	1.16	1.26	1.00	0.89

벤치마크 산출 시 주요 가정 및 정의

SI-IRR(Since-Inception Internal Rate of Return)

최초 펀드 납입시부터 측정 기준시점까지의 연간 수익률로써 최초펀드 납입액, 각 일자별 출자납입액 및 분배액, 미청산 보유자산의 기말 순자산가치 평가액(NAV)을 현금흐름으로 투입하여 계산한다.

Pooled IRR

포트폴리오 내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고, 각 시점에 발생한 펀드들의 모든 현금흐름 및 NAV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nd-to-end IRR

임의로 지정한 시작과 끝 두 시점 사이의 성과를 측정한다. 시작시점에서는 최초펀드 납입액 대신 기초 순자산가치 평가금액(NAV)을 납입액으로 대용한다.

결성연도

펀드의 법적성립연도이며, 펀드의 첫 번째 Closing, 혹은 첫 번째 Capital Call 시점과 같거나 그 이후이다.

투자배수(= TVPI, Total Value to Paid-In)

출자금 대비 누적 배분금 + 잔여가치 합 의 비율로 펀드 전체 성과를 측정한다. (e.g. 수익배수 1.5 → 1을 투자해 0.5의 투자 초과수익을 거둠)

4분위수

각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4그룹으로 나눌 때, 그 기준값을 1~4분위수로 표시한다.

중위값

각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최대 / 최소값

각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최대 / 최소값이다.

[별첨 1] end-to-end Pooled IRR

end-to-end IRR :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출자하고 배분한 금액과 잔여 자산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NAV_s = \frac{CF_1}{(1+r)^{t_1}} + \frac{CF_2}{(1+r)^{t_2}} + \dots + \frac{CF_{i-1}}{(1+r)^{t_{i-1}}} + \frac{NAV_F}{(1+r)^T}$$

의 등식을 만족하는 r (할인율, %)

NAV_s : 시작점의 순자산가치

NAV_F : 끝점의 순자산가치

• NAV(Net Asset Value)=재무상태표상 순자산+투자자산 평가액-투자자산 장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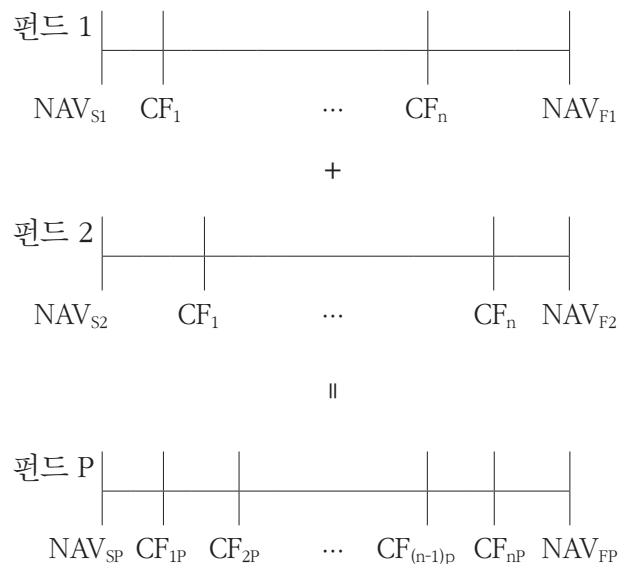
CF_i : i시점(t_i)에 발생한 (±)현금흐름

• NAV를 증가(자금 유입)시키는 현금흐름(중간배당, 원금분배)은 양의 값(+), NAV를 감소(자금 유출)시키는 현금흐름(출자금)은 음의 값(-)

t_i : CF_i가 발생한 시점

T :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기간

<Pooling : 펀드 1 Portfolio + 펀드 2 Portfolio + ... + => Portfolio pooled>



♣ e.g.) 국내 벤처펀드의 end-to-end Pooled IRR 계산(2020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의 경우)

→ **1단계** 2019. 12. 31. 및 2020. 12. 31.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가치평가 금액에서 기 배분액을 차감한 펀드 보유 잔여 자산의 가치(NAV)를 합산

- 2019. 12. 31. 및 2020. 12. 31. 시점의 모태 출자펀드 순자산 가치 총합(NAV) :
Σ (2019. 12. 31. 및 2020. 12. 31.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평가액 - 기 배분액)

→ **2단계** 2020. 1. 1. ~ 2020. 12. 31. 기간에 발생한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을 취합하여 분기별 기중현금흐름으로 변환

- 방법 | 2020. 1. 1. ~ 3. 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2. 15.로 변환,
2020. 4. 1. ~ 6. 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5. 15.로 변환,
2020. 7. 1. ~ 9. 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8. 15.로 변환,
2020. 10. 1. ~ 12. 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 일자를 11. 15.로 변환함.
이 경우 1년 총 4번의 중간현금흐름이 발생
(1~3월→2. 15. / 4~6월→5. 15. / 7~9월→8. 15. / 10~12월→11. 15.)

→ **3단계** 위 4번의 현금흐름과 시작/종료 시점 NAV값을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산출 (2020. 1. 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20. 12. 31.에 기말 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 NAV (at 2019. 12. 31.) ± CF (at 2020. 2. 15.) ± CF (at 2020. 5. 15.) ± CF (at 2020. 8. 15.)
± CF (at 2020. 11. 15.) + NAV (at 2020. 12. 31.) 의 IRR 산출

[별첨 2] PME(Public Market Equivalent)

♣ e.g.) KOSPI PME 계산 (2020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의 경우)

→ 1단계 2020. 12. 31 기준 과거 1년간 KOSPI 지수 증가 변동률 계산

- 산식 | $((\text{KOSPI 지수(at 2020. 12. 31)} / \text{KOSPI 지수(at 2019. 12. 31.)} - 1) \times 100\%)$

→ 2단계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에서 계산한 2020. 1. 1. ~ 2020. 12. 31. 기간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과 반기별 NAV, KOSPI 지수를 활용하여 시점별 배분금(DPME) 및 수정 NAV(mNAV) 산출

- 산식 | $DPME = \left(\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mNAV_i = \left(1 - \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DPME$: 수정배분금

D_i : i시점에 발생한 배분금

NAV_i : i 시점의 순자산가치

$mNAV_i, mNAV_{i-1}$: i, i-1시점의 수정NAV

$KOSPI_i, KOSPI_{i-1}$: i, i-1시점의 KOSPI 지수 증가

C_i : i시점의 출자금

→ 3단계 위 배분금과 출자금 합을 순현금흐름으로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값 산출 (2020. 1. 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20. 12. 31.에 기말 m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 NAV \text{ (at 2019. 12. 31.)} \pm \text{Net CF (at 2020. 2. 15.)} \pm \text{Net CF (at 2020. 5. 15.)} \pm \text{Net CF (at 2020. 8. 15.)} \pm \text{Net CF (at 2020. 11. 15.)} + mNAV \text{ (at 2020. 12. 31.)}$ 의 IRR을 산출

※ KOSDAQ PME 계산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나, KOSPI 지수 대신 KOSDAQ 지수로 산출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벤처투자 모태조합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

벤처투자 모태조합이
투자하여 보유한 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2020년 12월 기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포트폴리오 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벤처투자 모태조합 투자 유니콘 및 유니콘 후보 기업 현황

♣ 들어가며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로 상상의 동물이다. 이런 상상 속 동물의 명칭이 붙은 유니콘 기업이란 무엇일까? 유니콘 기업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카우보이 벤처스'의 창업자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현재는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상장기업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s가 집계하는 「The 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2021년 10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6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는 USD 2,823.1 billion에 달한다. 이 중 한국 기업은 11개이며(토스, 옐로모바일, 위메프, 무신사, 컬리, GP클럽, 엘앤피코스메틱, 에이프로젠, 아놀자, 쏘카, 두나무) 이들의 총 기업가치는 USD 24.69 billion을 기록하고 있다.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 모태조합이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유니콘과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보 기업들의 특징을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2020년 12월 말 기준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기업 중 유니콘 및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한 유니콘 후보 기업들의 기업가치, 투자금액, 업종, 업력, 매출액 분포 등을 분석했다. 기업가치 기준으로 크게 세 개의 구간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반기별 추세 정보도 포함했다.

♣ 기업가치

지난 가치평가 기준일(2020년 6월) 대비 2020년 12월 말 유니콘 및 기업가치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개수는 35개 증가해(47개 신규진입, 12개 제외) 총 91개 기업이었다. 이 중 1조 원 이상 기업은 7개,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12개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기업은 72개로 직전 반기 대비(41개) 대폭 증가했다.

91개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 값은 5,460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상 기업들의 평균 기업가치 대비 6.2% 하락했으며, 중위값은 3,033억 원으로 직전 반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기업가치 중위값 구간을 포함하는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구간의 대상 기업들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등으로 벤처투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져 새로운 기업가치 2천억 원 이상 유니콘 후보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기업가치의 평균값은 2019년도부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직전 반기 대비 1조 원 이상 기업들의 기업가치 평균값은 27.8% 증가했는데, 기존 2개 유니콘 기업이 IPO 및 기업가치 하락으로 제외되었고, 신규 2~3조 원 대의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2개 기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 외 1조 원 미만 그룹별 기업가치 평균값은 직전 반기 대비 크게 변동이 없었다.

표 1 2020년 12월 말 기준 기업가치 분포

(단위 : 개)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2020년도 반기 대비 증가 개수, ▼감소 개수)		
1조 원 이상	7(-)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2(▲4)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9천억 원~1조 원	2(▲2)
		8천억 원~9천억 원	2(▼1)
		7천억 원~8천억 원	3(▲2)
		6천억 원~7천억 원	2(▲1)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72(▲31)	5천억 원~6천억 원	3(-)
		4천억 원~5천억 원	11(▲8)
		3천억 원~4천억 원	18(▲8)
총 계		2천억 원~3천억 원	43(▲15)
		91(▲35)	

출처 한국벤처투자

- 1조 원 이상 그룹에는 기존 2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2개 기업이 포함됨
-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에는 기존 1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5개 기업이 포함됨
- 5천억 원 미만 그룹에는 기존 10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41개 기업이 포함됨

그림 1 기업가치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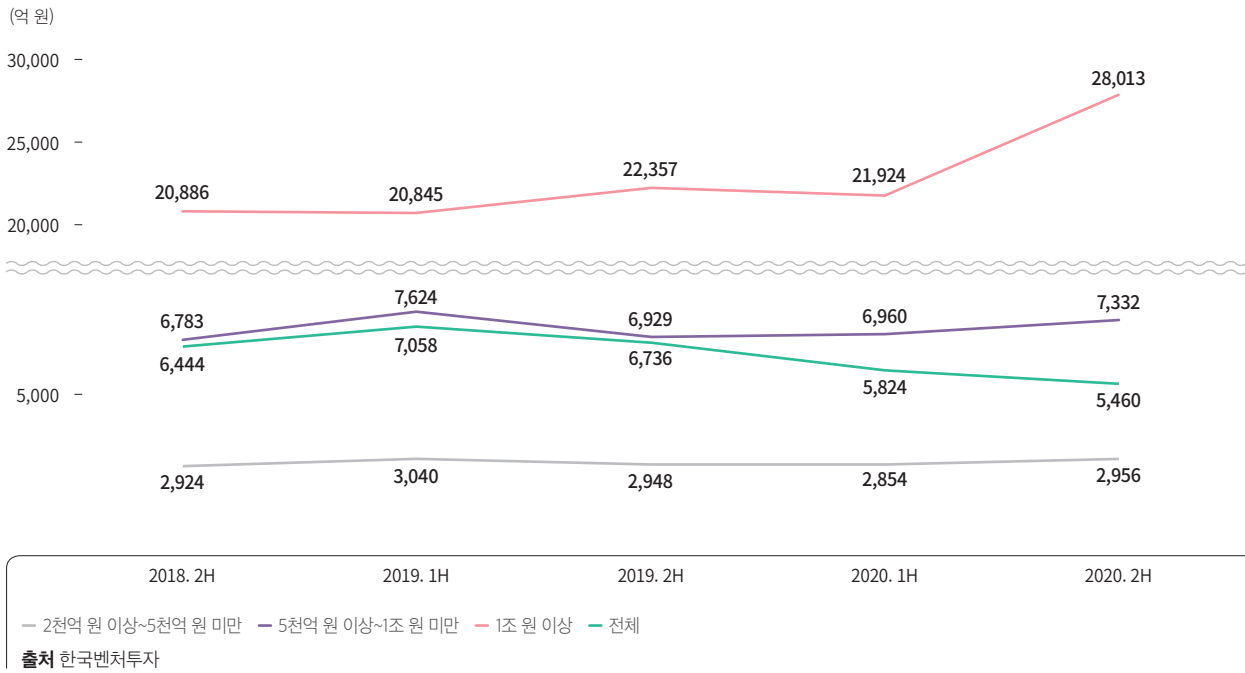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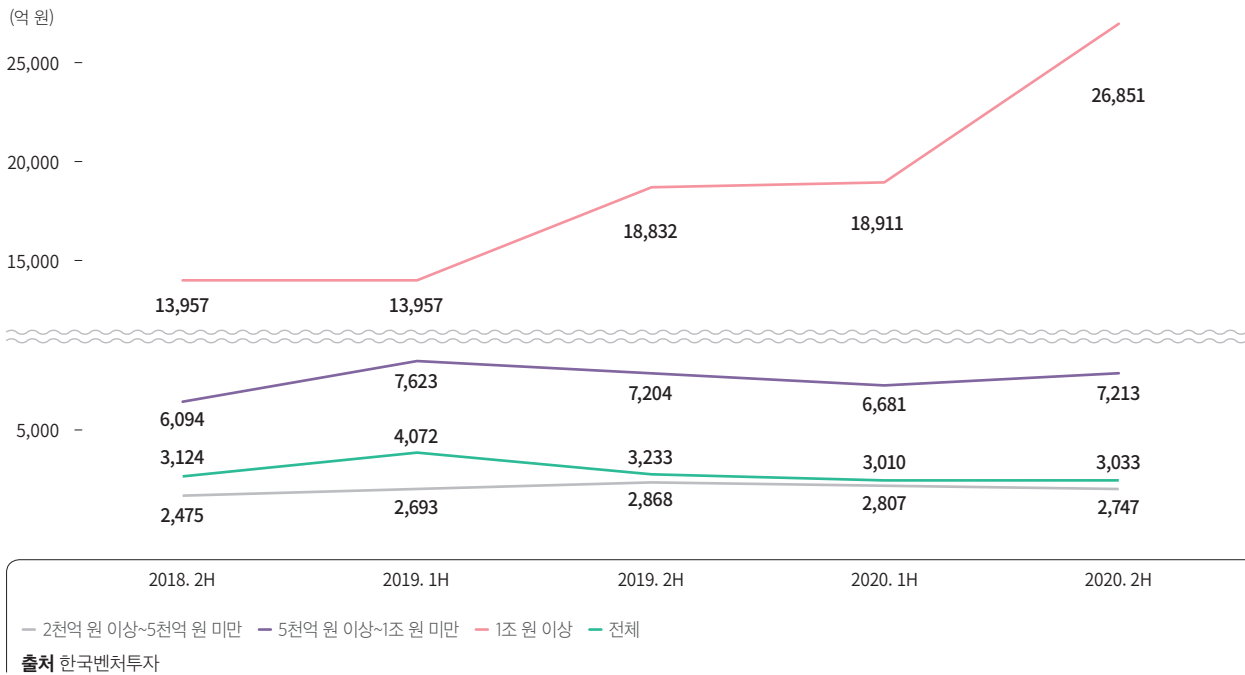


그림 2 기업가치 중간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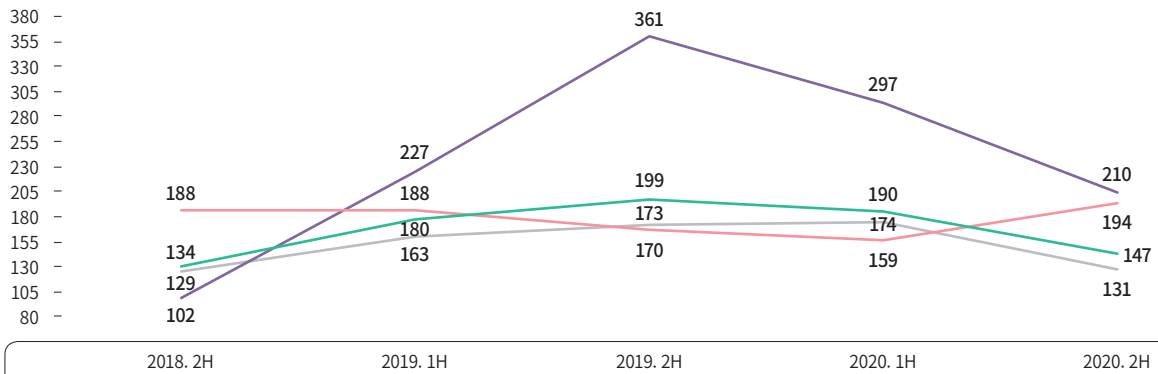
♣ 투자금액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의 출자펀드는 분석 대상인 91개 기업에 2020년 12월 말까지 총 1조 3,33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한 개 기업당 평균 약 14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투자금액은 직전 반기 대비 22.7% 감소한 것으로 이는 1조 원 미만 그룹에서의 전반적인 투자기업 수 증가에 따른 평균 투자금 축소에 기인한다.

2019년도에 약 2.1배로 최고로 벌어졌었던 1조 원 이상 그룹과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 차이는 2020년 말 1조 원 이상 그룹의 평균 투자금이 직전 반기 대비 약 22% 상승,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이 약 29% 감소하며 1.1배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한편,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 역시 투자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직전 반기 대비 약 24% 감소했다.

그림 3 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 출자펀드 투자금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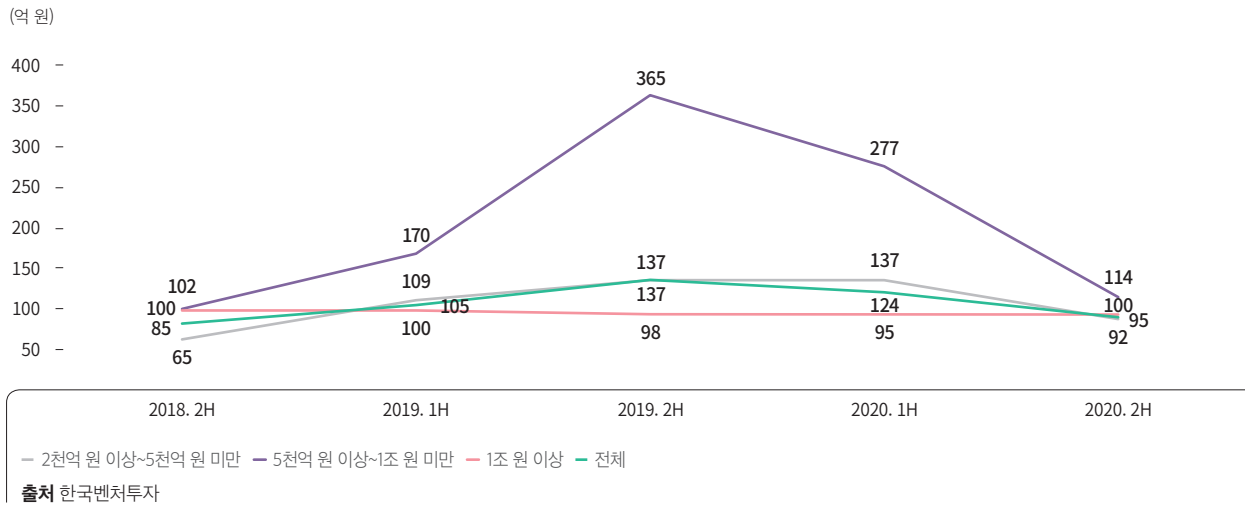
(억 원)



—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 1조 원 이상 — 전체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4 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 출자펀드 투자금 중간값 추이



♣ 업종

한국벤처투자의 업종 분류 기준(상세 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 참고)에 따라 투자기업을 산업 및 산업 내 세부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니콘 및 후보 기업이 가장 많이 탄생한 산업은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였다. 전체 91개 기업 중 ICT 서비스 33개(33.3%), 바이오/의료 26개(26.3%), 유통/서비스 16개(16.2%)로 3개의 산업이 75.8%를 차지했다. 이 세 개의 업종은 직전 반기에도 85.7% 수준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19년도 이후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 진입 기업 35개 중 14개가 바이오/의료 산업으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기업가치 또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CT 서비스는 7개가 늘어났다. 이어서 유통/서비스 6개, 화학/소재 4개 등이 증가했다.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이 14개, 정보 서비스 6개, 도소매업 6개 등에 집중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벤처투자 산업 분류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산업 분류	기업 개수(▲2020년 반기 대비 증가한 개수, ▼감소한 개수임)		
		세부분야 분류	기업 개수
ICT 서비스	33(▲7)	소프트웨어	17(-)
		정보서비스	15(▲6)
		통신	1(▲1)
바이오/의료	26(▲14)	의료용 물질/의약품	20(▲14)
		의료기기	6(-)
유통/서비스	16(▲6)	도소매업	11(▲6)
		전문 서비스	4(▼1)
		운수	1(▲1)
화학/소재	4(▲4)	화학물질/제품	4(▲4)
게임	3(▼1)	게임소프트웨어	3(▼1)
영상/공연/음반	1(▲1)	영상	1(▲1)
기타	8(▲6)	부동산/임대	2(▲1)
		섬유/의복/가죽	2(▲1)
		금융	1(▲1)
		에너지/자원	1(▲1)
		음식료	1(▲1)
기타		기타	1(▲1)
총 계			91(▲35)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5(▲1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1(▲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2)	기타 전문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8(▲2)	남녀용 겹옷 및 셔츠 도매업	1(▲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5(▲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1(▲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2)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1(▲1)
전자상거래 소매업	2(▲2)	자동차 임대업	1(-)
화장품 제조업	2(▲2)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1(-)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1(▲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1)	지정 폐기물 처리업	1(▲1)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	통신 재판매업	1(▲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1)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1(▲1)	화장품 및 화장품품 도매업	1(-)
기타 부동산 임대업	1(▲1)		

출처 한국벤처투자

♣ 업력

분석 대상 91개 기업들의 2020년 12월 말 현재 업력 평균은 8.0년으로 직전 반기에 분석한 56개 기업 업력의 평균값 대비 0.9년 감소했다. 기업가치별로 1조 원 이상 기업의 업력 평균 11.7년,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8.1년,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기업은 7.7년이였다. 1조 원 이상 그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균 업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 최소값은 1.6년, 최대값은 20.7년으로 편차는 매우 크다.

표 4 2020년 12월 말 업력 현황

(단위 : 년)

기업가치 분류	업력 평균	업력 최대값	업력 최소값
	(▲ 2020년 반기 대비 증가한 업력, ▼감소한 업력)		
1조 원 이상	11.7(▲1.2)	17.8(▲3.9)	7.4(-)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8.1(▼2.4)	13.8(▼9.8)	2.5(-)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7.7(▼0.6)	20.7(-)	1.6(▼1.9)
전 체	8.0(▼0.9)	20.7(▼2.9)	1.6(▼0.9)

출처 한국벤처투자

♣ 매출액

2020년 말 기준으로 각 사 회계정책에 따라 집계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91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284.7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의 2019년 말 기준 매출액 대비 16.6% 증가한 수치로 유니콘 기업을 필두로 한 매출 상위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대폭 상승한 영향이다.

1조원 이상 그룹은 평균 7,69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124.3% 증가했고,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은 2,260.2억 원으로 1.2% 감소,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은 499.2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표 5 2020년 말 결산 매출액 평균

(단위: 억 원)

기업가치 분류	매출액 평균
1조 원 이상	7,691.4 (124.3% YoY)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2,260.2 (-1.2% YoY)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499.2 (9.1% YoY)
전 체	1,284.7 (16.6% YoY)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표 6 2020년 말 결산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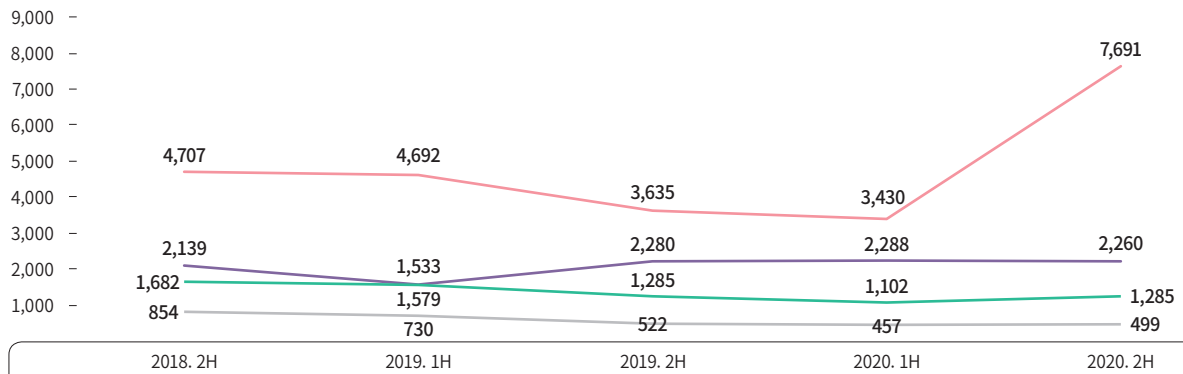
(단위: 개)

매출액 분류	기업 수(▲ 2020년 반기 대비 증가한 개수, ▼ 감소한 개수)
1천억 원 이상	25(▲5)
5백억 원 이상~1천억 원 미만	16(▲14)
1백억 원 이상~5백억 원 미만	17(-)
1백억 원 미만	33(▲16)
전 체	91(▲3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그림 5 매출액 평균값

(억 원)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 전체

출처 한국벤처투자

♣ 소고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자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유니콘 후보 기업들을 대표하는 특징을 하나의 기업으로 표현하자면, ICT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력 8.0년의 기업으로, 2020년에 1,28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국벤처투자 출자펀드로부터 147억 원을 투자받아 5,460억 원의 기업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등으로 벤처투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져 새로운 기업가치 2천억 원 이상 유니콘 후보 기업들의 수가 주목할 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진입 기업 35개 중 14개가 바이오/의료 산업으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 및 시장의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직전 반기 대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들의 기업가치 평균값은 27.8% 증가, 2019년 대비 매출액은 124.3% 증가해 유니콘 기업들의 질적 성장 또한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반기마다 업데이트될 상기 유니콘 기업 및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 설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 한국벤처투자 업종 분류 기준 소개

당사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9개 산업과 36개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산업(9개)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ICT 제조, 게임,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기타

산업 내 세부 분야(36개)

의료용 물질/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표 7 한국벤처투자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 분류

산업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	의료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산업	전기/기계/장비	ICT 제조	게임
분야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산업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분야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산업	기타		
분야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기타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해외 VC

시장 동향 /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1년 3분기**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Monitor, 2021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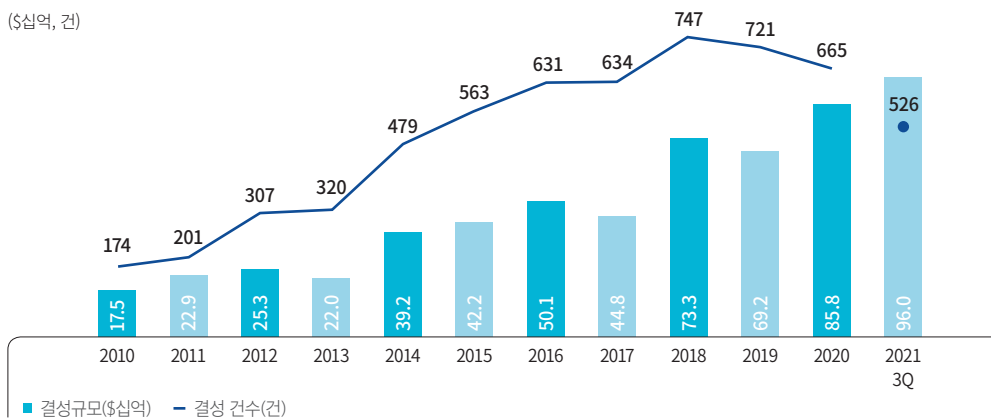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결성(Fundraising)

2021년 3분기에만 161개의 신규 펀드가 결성되었고, 이에 올해 3분기까지 526개의 펀드에서 960억 달러의 결성총액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온기 실적인 858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지금의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펀드 결성규모는 그간 불가능한 수치로 여겨졌던 1,000억 달러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미국 VC 펀드 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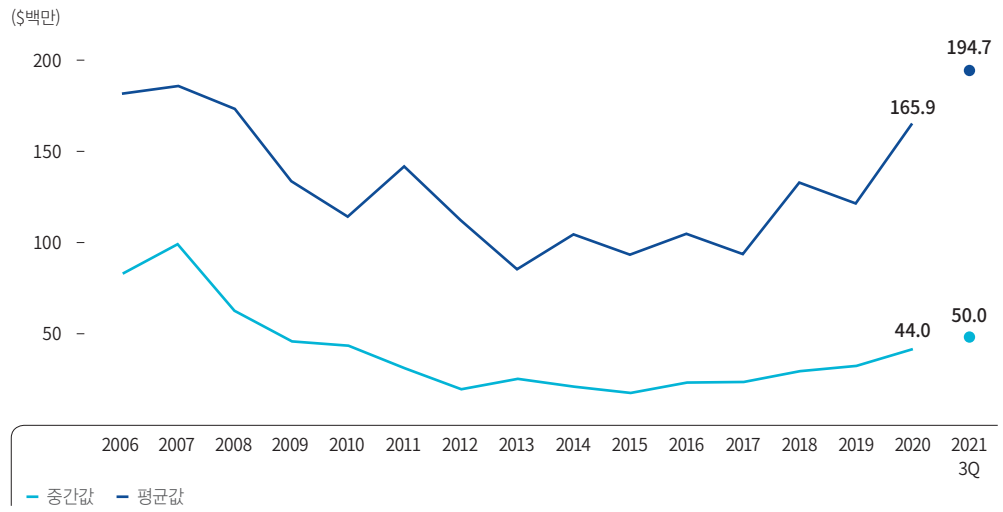
(\$십억, 건)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올해 현재까지 결성된 펀드의 평균 결성규모는 약 1억 9천만 달러로서 상반기의 기록인 약 2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감소(약 14.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20년도 온기 기준인 약 1억 7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약 17.4% 상승)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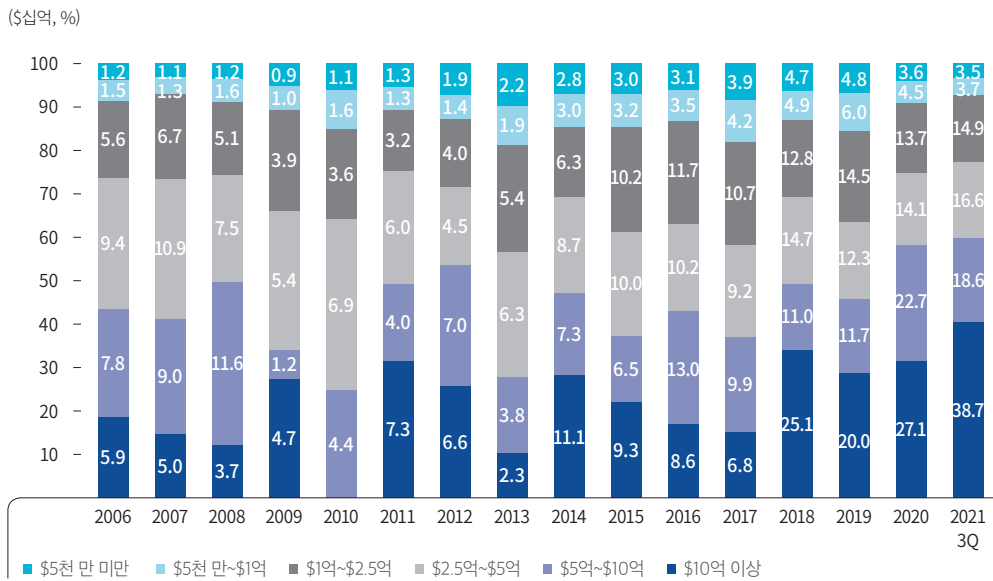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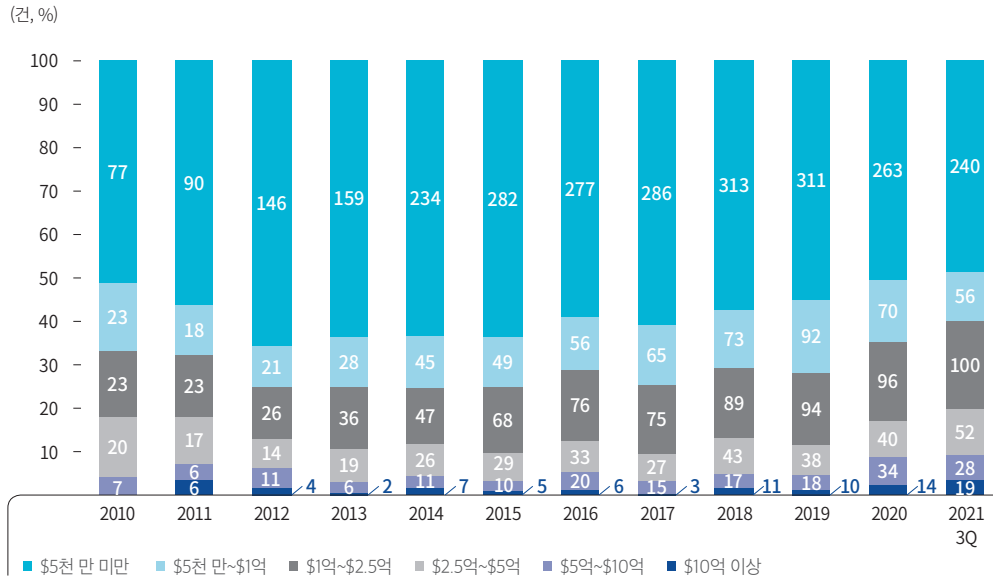
그림 2 펀드 결성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끊임없는 펀드 결성규모의 증가는 지속 중인 펀드의 대형화와 연관이 깊다. 2021년 3분기까지 결성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펀드가 19개가 결성되어 작년 동기 기준 기록인 14개를 이미 넘어섰으나, 반대로 기존까지 결성 건수 기준으로 50% 이상을 유지하던 결성규모 5천만 달러 미만의 소액 펀드의 경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0%의 벽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성규모 기준으로 보면 펀드의 대형화 추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3분기까지 결성된 526개의 펀드 중 19개에 불과한 결성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펀드가 전체 결성규모의 약 40%인 38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결성규모 5억 달러 이상까지 확대해서 보면 47개의 펀드가 2021년 3분기까지 전체 결성규모의 약 60%인 573억 달러를 조달하며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펀드 결성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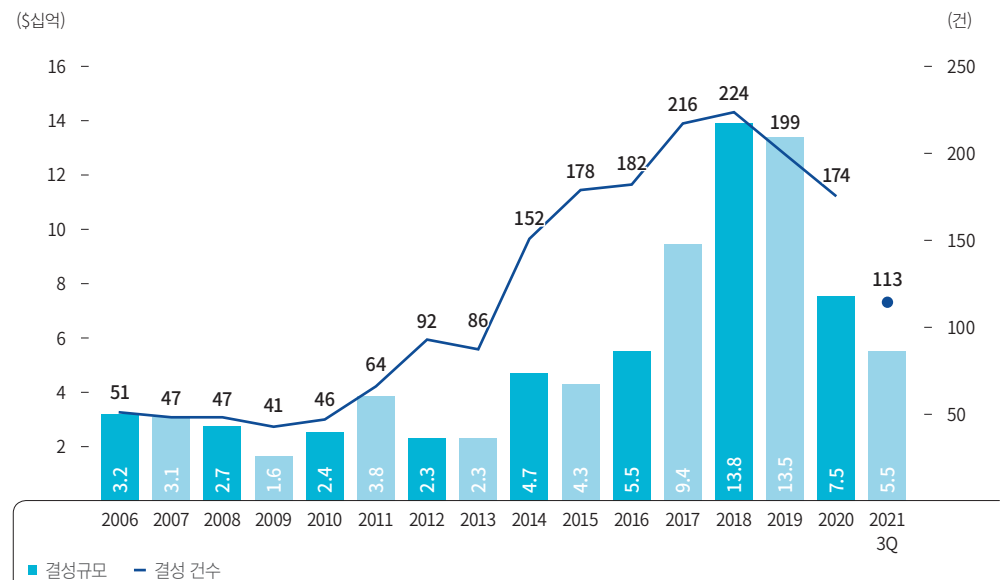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단, 3분기 들어 펀드 결성에 있어 미세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다. 올해 3분기까지 결성된 결성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펀드 19개 중 3분기에 결성된 것은 18억 달러의 결성규모를 가진 IVP's Fund XVII가 유일하다. 최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펀드 결성이 지속되면서,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들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금 배분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향후 몇 분기 동안 펀드 결성의 정체가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IPO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고 이에 LP에게 분배된 실현 수익이 다시 벤처캐피탈 시장으로 재투입될 수 있기에 지금의 펀드 결성 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실제로 작년 LP로 분배된 양(+)의 현금흐름은 7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다시 새로운 VC(벤처캐피탈) 펀드로 출자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올해 전반적으로 펀드 결성이 건수 및 규모에 있어서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펀드 결성에 있어선 이런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올해 3분기까지 최초 펀드 결성은 총 113개의 펀드를 통해 55억 달러의 결성규모를 기록하였는데, 다른 수치들과 달리 작년 온기 기준인 174개의 최초 결성펀드 및 75억 달러의 결성규모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4분기에 올해 3분기까지의 평균 실적이 이어짐을 가정한다면 최초 펀드 결성 실적은 최고치를 경신했던 2018년 이후로 결성규모 및 건수 모두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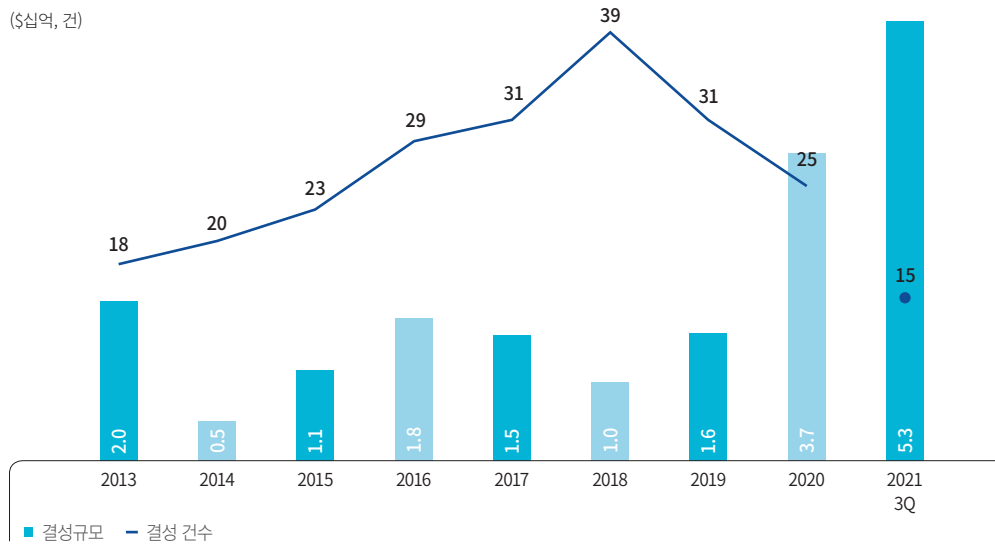
그림 4 최초 펀드 결성 실적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3분기의 펀드 결성 활동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건은 전용 임팩트(Impact) 펀드의 출현이다. 임팩트 펀드는 2021년 3분기까지 15개의 펀드를 통해 53억 달러를 조달하여, 2020년 온기 기준 37억 달러와 2018년 온기 기준 16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정 LP들의 ESG에 대한 요구와 함께 투자자들 역시 임팩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PitchBook이 457명의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VC]) 및 LP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과 임팩트 투자가 많은 투자 전문가들의 최우선 관심사임이 확인되었다. 3분기에 결성된 임팩트 펀드 중 Uber(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Chris Sacca가 운영하는 ‘Lowercarbon Capital’이 결성한 8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등의 탈-탄소화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신생 GP들이 LP들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영역(Pollution 관련)으로 자리 잡아가는 동 분야에서 결성된 최초의 펀드이다.

그림 5 임팩트(Impact) 펀드 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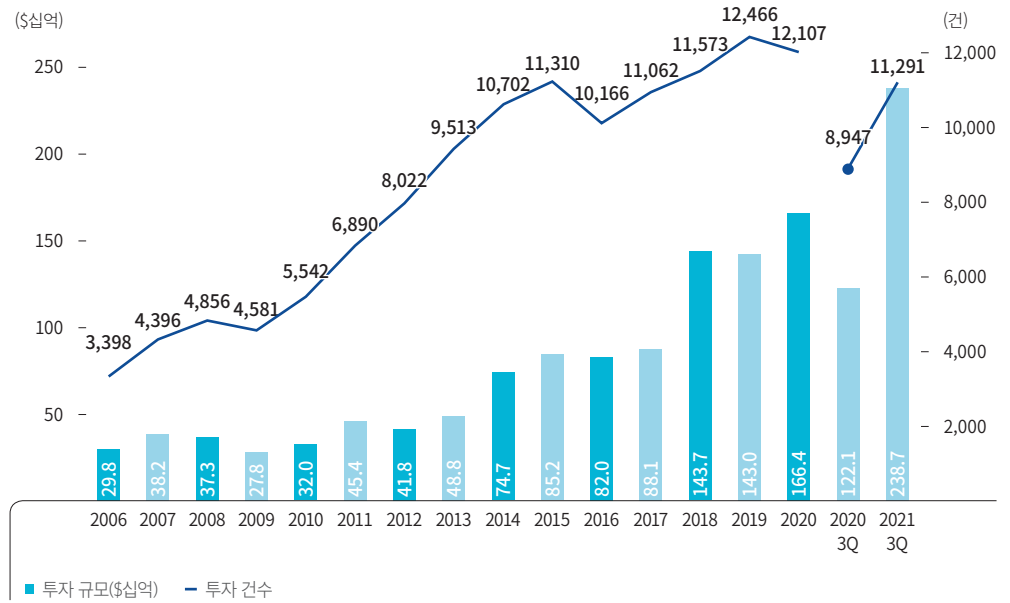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투자(Deal)

2021년 3분기까지 총 11,291건의 2,387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래 규모는 95.5%, 거래 건수는 26.2% 상승한 수치이다.

그림 6 미국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투자 규모의 상승에는 결성활동에서 나타난 대형화가 역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들어 미국 VC 투자 규모의 상승에는 빠르게 성장 중인 메가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발생한 거래)에 의한 영향이 큰데, 2021년 3분기까지 메가딜은 597건으로 이중 3분기에만 207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1년의 경우 메가딜이 VC 투자의 유의미한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 전체 거래의 57.2%가 메가딜에서 발생하였다. 반대로 최초 투자 유치는 아직 올해가 지나지 않았지만, 다른 영역의 투자 활동의 상승 추세와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 건수 및 규모의 모든 측면에서, 작년 온기 기록에 미치지 못하는 3,048건의 140억 달러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4분기에 올해 3분기까지의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최초 투자 유치 활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 건수 및 규모 모두 작년 온기 기록인 3,441건의 150억 달러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올해의 상황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보인다.

그림 7 미국 VC 메가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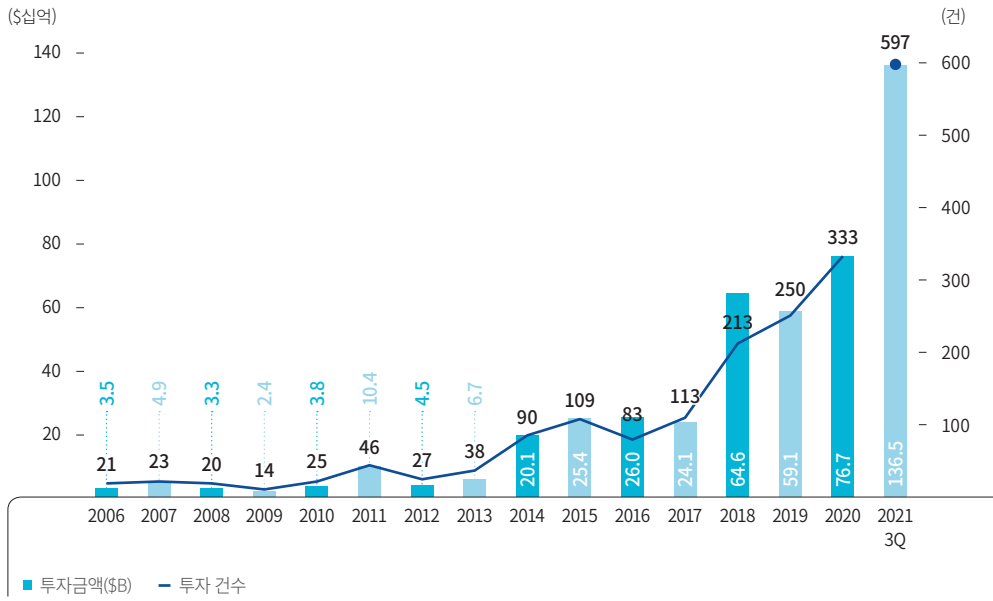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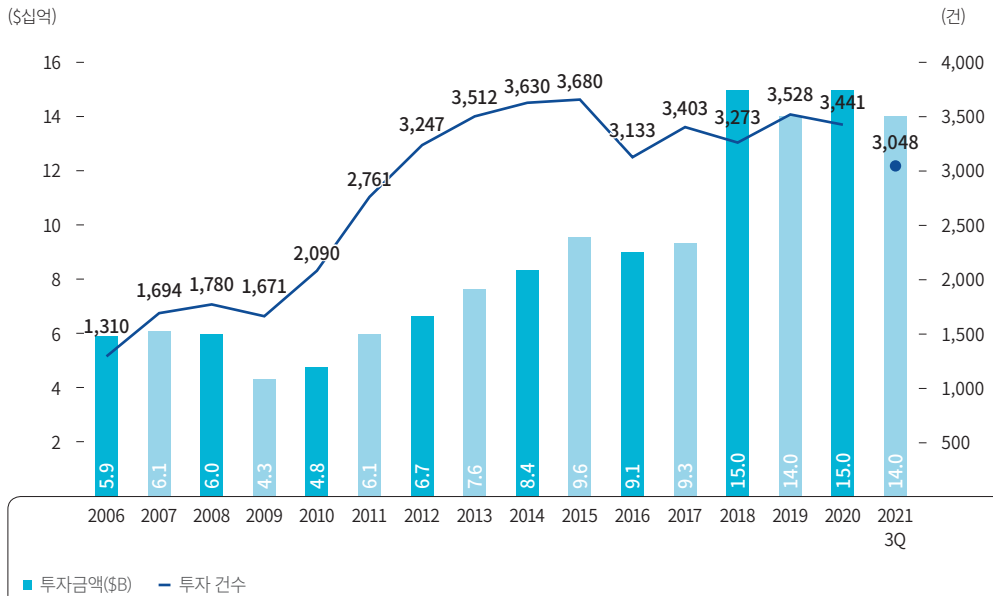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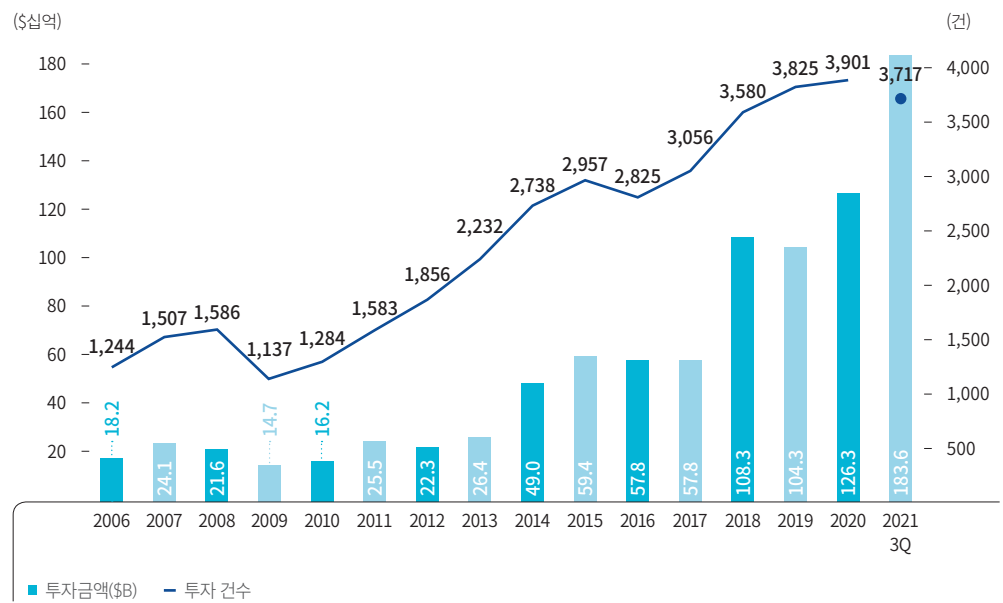


그림 8 미국 VC 최초 투자 유치 현황



메가딜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 규모의 상승에는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다.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올해 3분기까지 참여한 거래의 규모는 기존 연간 최고치였던 작년 온기의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거래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76.9%에 이르며, 건수 기준으로도 32.9%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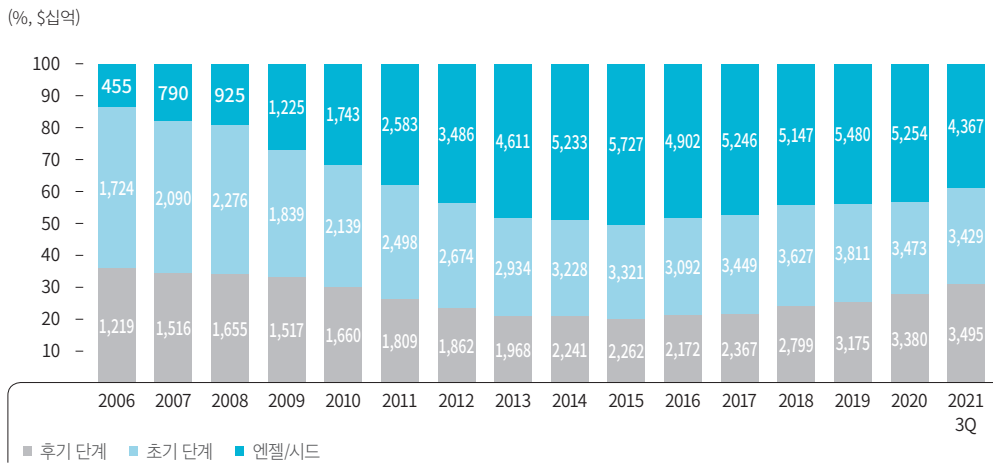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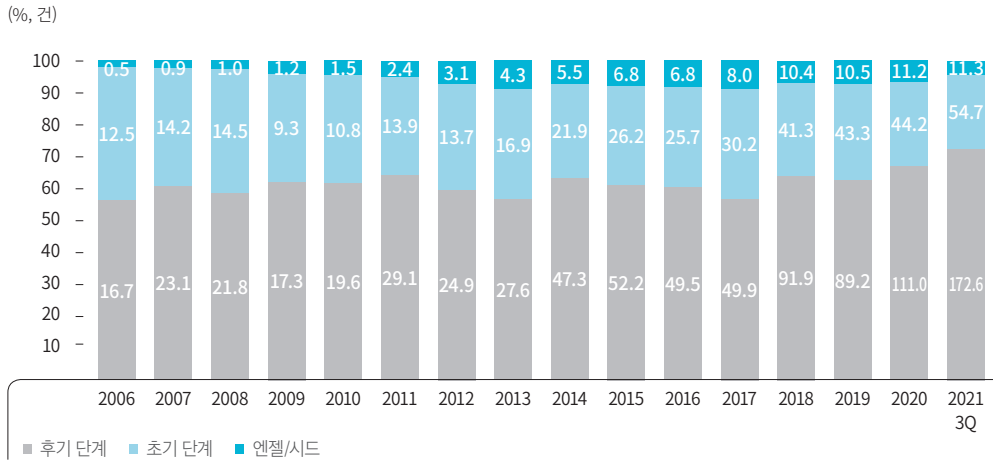
그림 9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거래의 투자금액 및 투자 건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투자 단계(엔젤/시드, 초기, 후기) 유형별 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올해 3분기까지 이미 작년 온기 기준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후기 단계의 경우 작년 온기 1,111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올해는 이미 3분기 기준으로 1,726억 달러가 투자되어 약 55.5%가 증가하였다. 초기 단계 역시 3분기 기준으로 작년 온기 금액에 비해 약 23.8% 증가하였고, 엔젤/시드 단계는 작년 온기 기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올해 4분기가 남아 있음을 감안하면 역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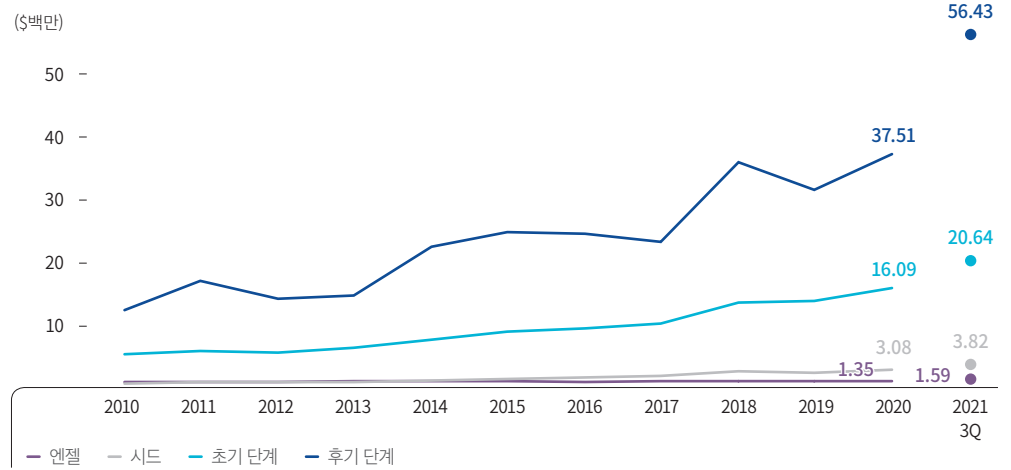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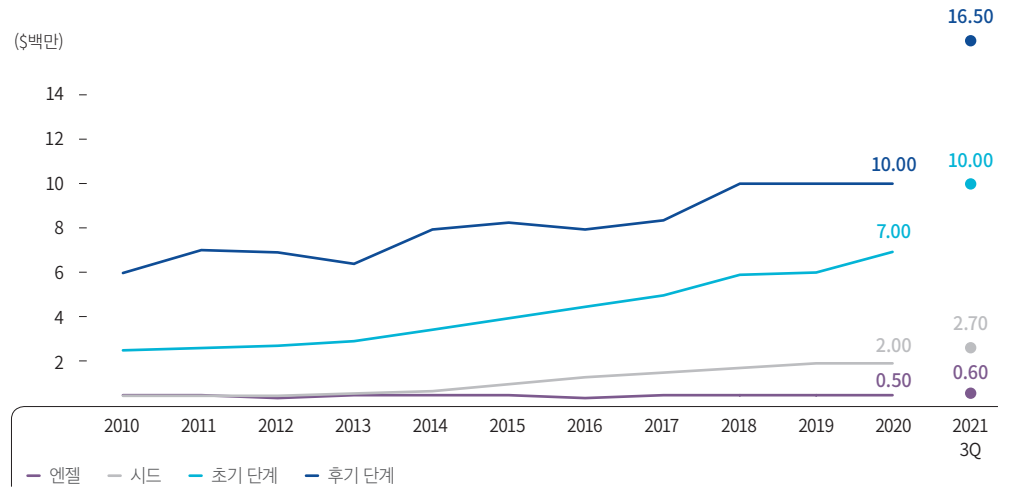
그림 10 투자 단계별 투자 건수(상) 및 투자금액(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단계별 투자 규모 중간값(평균값)은 올해 3분기까지 작년 동기 기준 대비 후기 단계 65.0%(50.5%), 초기 단계 42.9%(28.3%), 시드 단계 35.0%(23.9%), 엔젤 단계 20.0%(17.6%)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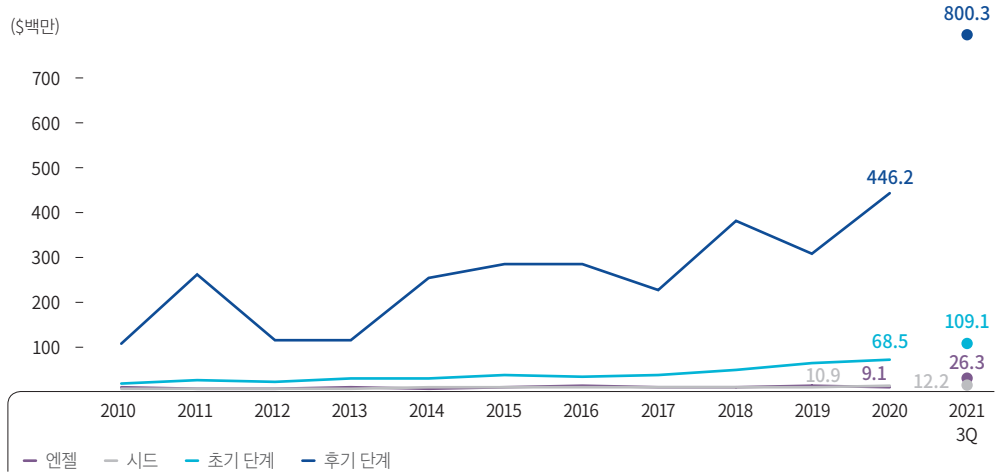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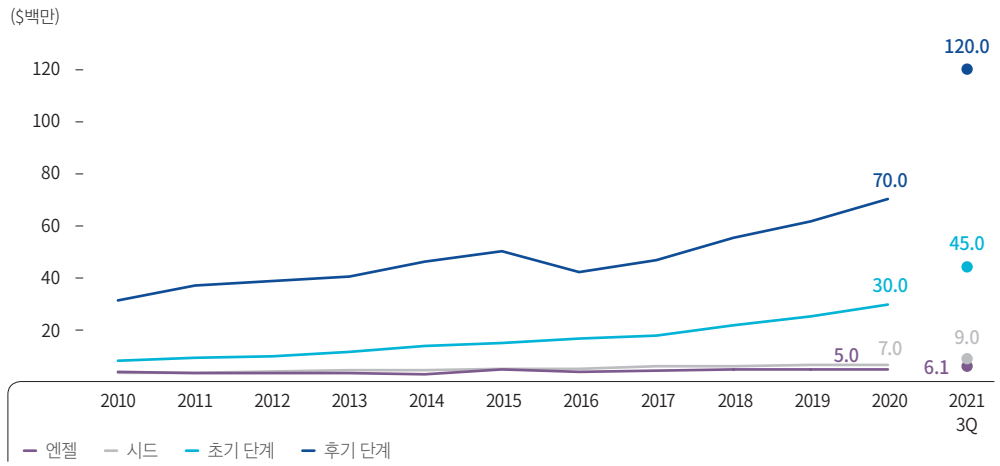
그림 11 투자 단계별 투자금액 중간값(상)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단계별 투자 전 기업가치의 중간값(평균값)은 올해 3분기까지 작년 동기 기준 대비 후기 단계 71.4%(79,3%), 초기 단계 50.0%(59.2%), 시드 단계 28.6%(11.9%), 엔젤 단계 22.5%(188.2%) 상승하였다.

그림 12 투자 단계별 기업가치(Pre-money) 중간값(상) 평균값(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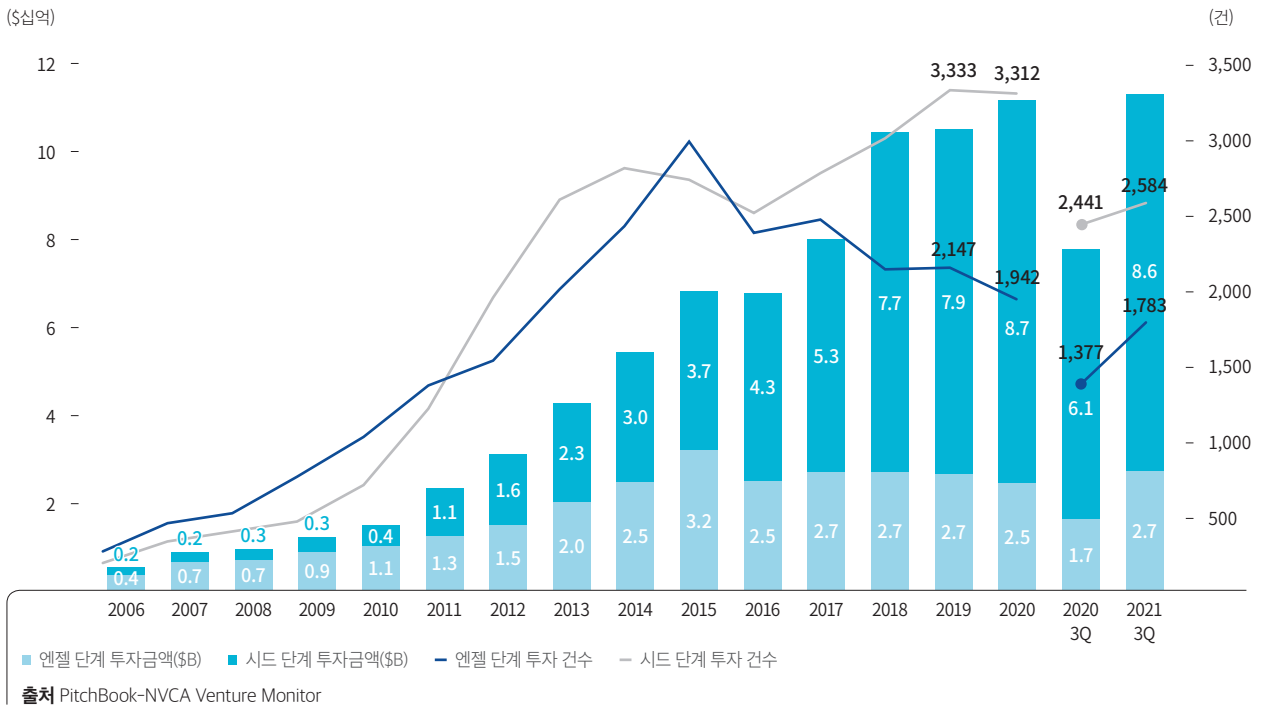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 엔젤 단계와 시드 단계를 구분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엔젤 단계는 VC, PE 등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투자 단계를 의미한다. 시드 단계는 VC, PE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50만 달러 이하의 투자 건을 포함한다. 이외 언론 보도 자료에서 특정 단계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단계에 포함시킨다.

올해 3분기까지 엔젤/시드 단계의 투자 규모는 각각 27억 및 86억 달러로 엔젤 단계의 경우 작년 동기 기준을 소폭 넘어섰고, 시드 단계의 경우 거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엔젤 단계의 경우 투자 규모는 65.5% 성장하였고, 시드 단계의 경우 약 39.8% 성장하였다. 투자 건수 역시 두 단계 모두에서 성장이 확인되었는데, 엔젤 및 시드 단계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29.5%, 5.9%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엔젤/시드 투자 건은 추후에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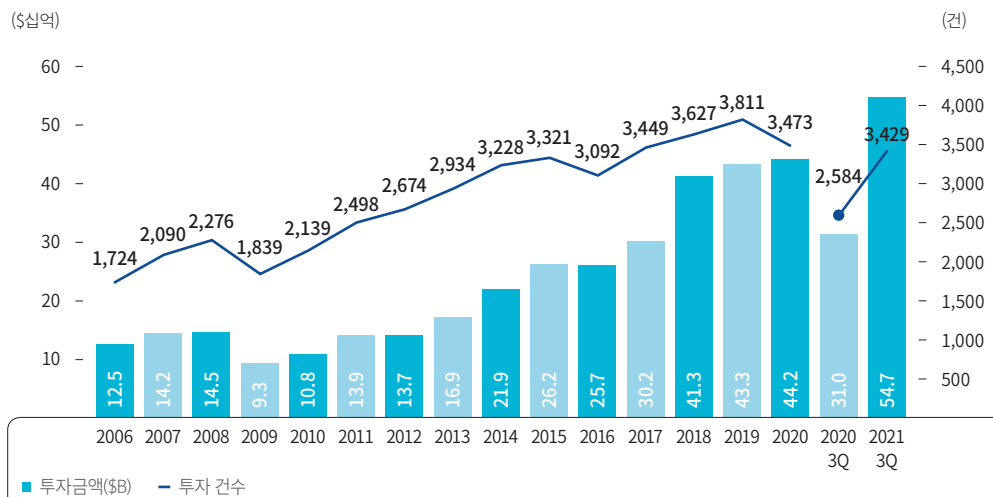
엔젤/시드 단계 투자에 대한 미래 전망은 여전히 밝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분기까지의 엔젤 단계 투자금액인 27억 달러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연간 총량과 일치하는 수치로서, 부유한 개인들이 지속해서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보인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후기 단계 등에 주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벤처의 라이프사이클에 더 빨리 참여하는 추세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3분기 동안 Andreessen Horowitz 및 Greylock은 각각 4억 달러 및 5억 달러의 결성규모를 가지며 시드 단계에 집중하는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였다. 두 VC에 있어 시드 단계 투자가 새로운 전략은 아니나, 시드 투자를 위한 펀드의 결성규모가 전형적인 시드 펀드들에 비해 매우 큰 편이며 이를 통해 투자기업 수, 거래의 규모 및 기업가치 등에 있어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VC는 모든 투자 단계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VC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극초기의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대형 펀드를 결성한 것은 후기 및 성장 단계가 점점 더 비전통적인 투자자로 붐비고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도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극초기 단계에 집중하는 펀드의 결성은 새로운 LP들을 유인하기 위한 다각화 전략 또는 기존 LP들에게 다변화된 리스크 프로필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2021년 3분기까지 초기 단계 투자는 3,424건에 걸쳐 547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32.7%, 76.4%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작년 동기 기준 기록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건수 및 규모 측면에서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초기 단계 투자는 3분기에도 매우 강한 추세를 보였는데, 3분기에만 1,122건의 197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림 14 미국 VC 초기 단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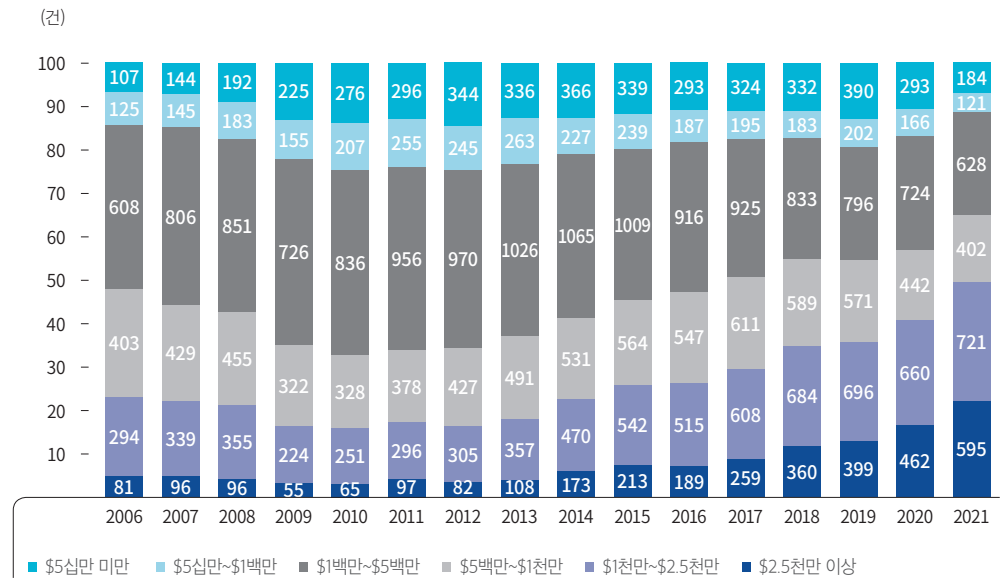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또한 초기 단계 투자에서 거래의 규모 및 기업가치 측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투자 활동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짐에 따라 유망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지난 9~12개월 동안 벤처 라이프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크로스오버(Crossover) 투자자*들의 증가 추세는 거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거래 규모 분포가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가지도록 한다(매우 큰 규모의 거래 비중이 증가). 2021년 거의 절반(49.7%)의 초기 단계 VC 투자는 1천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이에 올해 현재까지 초기 단계 VC 딜 규모의 중간값과 평균값은 각각 약 1천만 달러 및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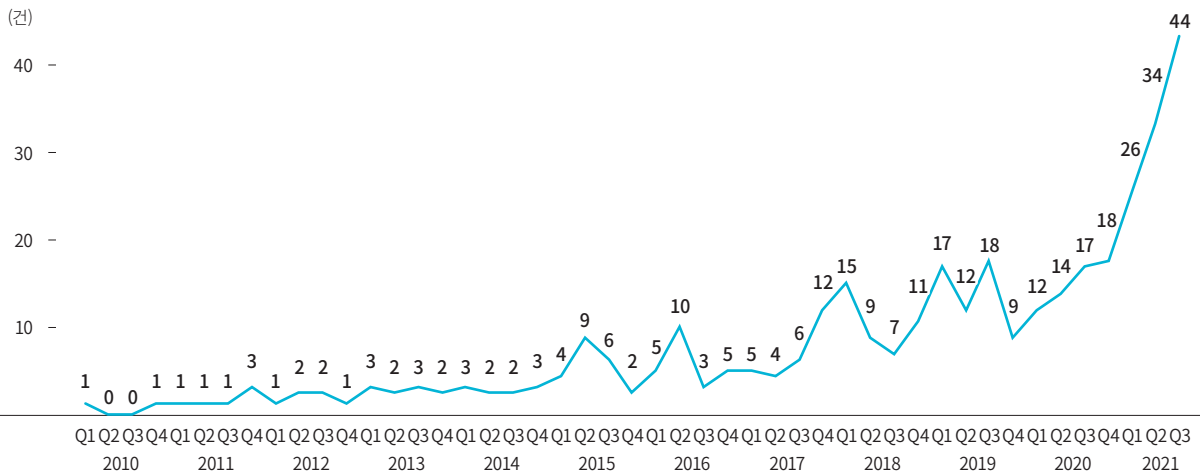
* 주로 상장 주식에 투자하나 비상장사도 함께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를 뜻함

그림 15 미국 VC 초기 단계 투자규모별 투자 건수 현황



주목할 것은 3분기 동안 44건의 초기 단계 메가딜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총 104건의 초기 단계 메가딜이 완료되었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기록인 61건의 초기 단계 메가딜을 이미 넘어선 기록으로서 벤처생태계 내 풍부한 자본에서 발생한 거래 규모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생태계 내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VC에 비해 가격에 민감하지 않기에 이들의 생태계 내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 초기단계 메가딜 건수의 분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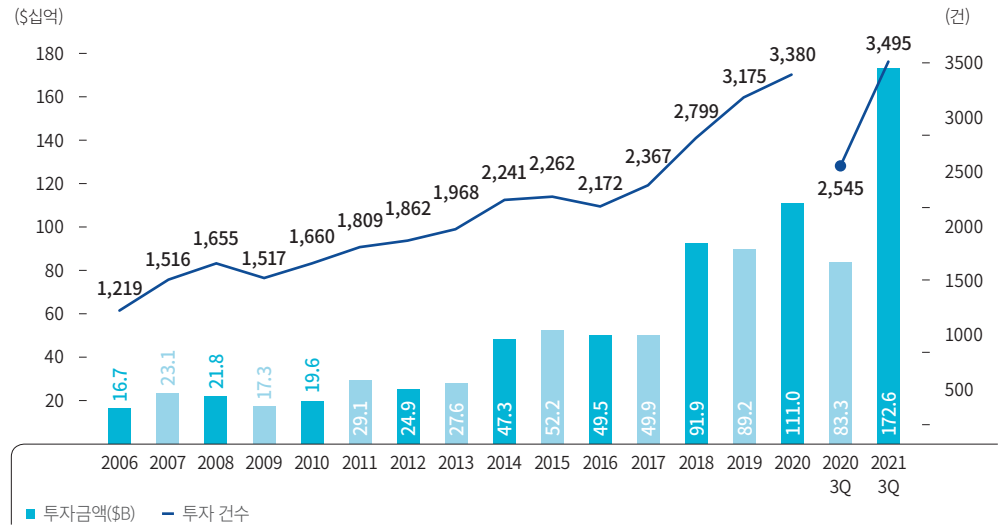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초기 단계 거래가 대형화됨에 따라, 가치배수(valuation multiple)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전통적으로 구별되는 시드, 초기 및 후기 단계 사이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금년도 3분기에는 역사적 기록과 동률인 11개의 초기 단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총 23개의 초기 단계 유니콘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던 2020년의 13건, 2019년의 12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지난 상반기에 이미 작년 온기 기록을 달성한 후기 단계 투자는 2021년 3분기까지 2,545건의 1,726억 달러가 투자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07.3%, 37.3%로 크게 성장하였다. 올해 3분기까지 후기 단계 투자는 전체 투자 대비 건수로는 약 30%, 금액으로는 약 70%를 상회하며 미국 VC 투자에 있어 주요 투자 단계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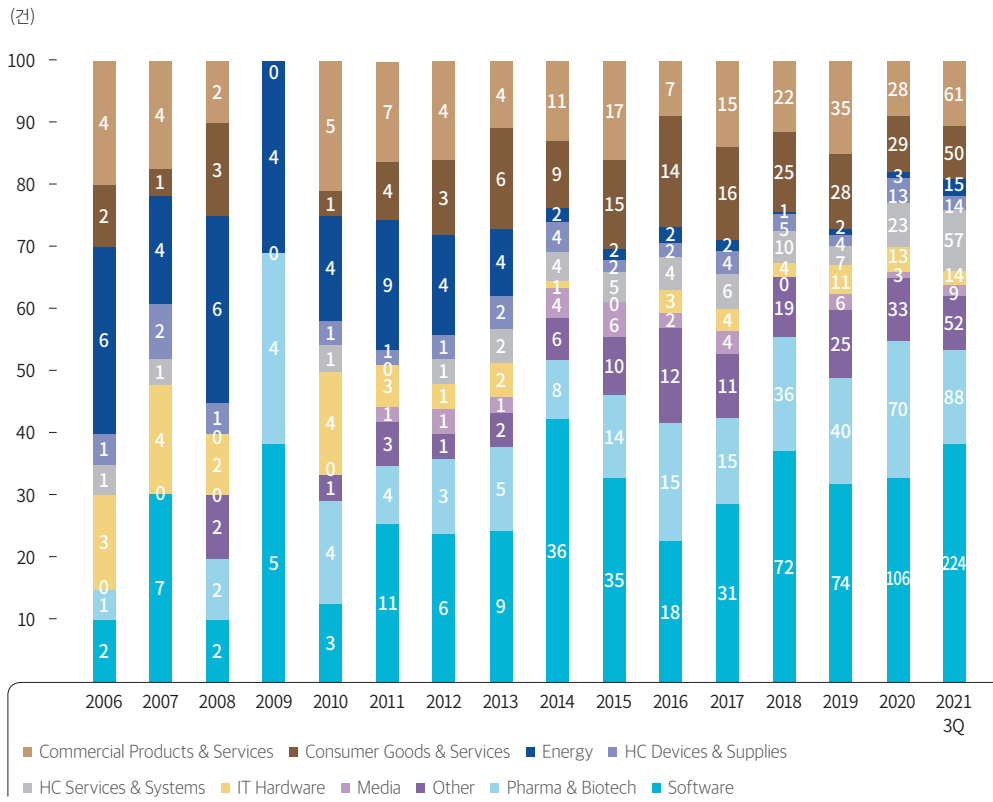
그림 17 미국 VC 후기 단계 투자 현황



후기 단계 투자의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한 것은 역시나 메가딜이었는데 2021년 3분기까지 종결된 597건의 메가딜 중 후기 단계의 메가딜은 전체의 82.2%인 491건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도 162건이 메가딜이 이루어졌다. 이런 대규모 거래는 지난 몇 년 간 VC 투자의 대부분을 이끌며(2021년 기준 57.2%), 후기 단계 투자에서 매우 흔한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VC 환경에서 진정한 아웃라이어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가 되었는데, 이 역시도 올 한해 벌써 12건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최근 VC 생태계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자본은 보다 성숙한 스타트업을 노리기에 후기 단계의 투자에 있어 이용 가능한 자본의 확장이 투자의 규모와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은 투자 과정에서 전통적인 VC들에 비해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투자체결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에 이런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는 지금과 같은 거래 규모와 기업가치의 대형화에 기여하고 있다.

3분기에서 주목할 만한 후기 단계 거래로는 25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완료한 전기 트럭 제조업체인 Rivian, 20억 달러의 투자 라운드를 마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플랫폼 개발업체인 Generate, 16억 달러의 투자 라운드를 끝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Databrick 등과 같이 비교적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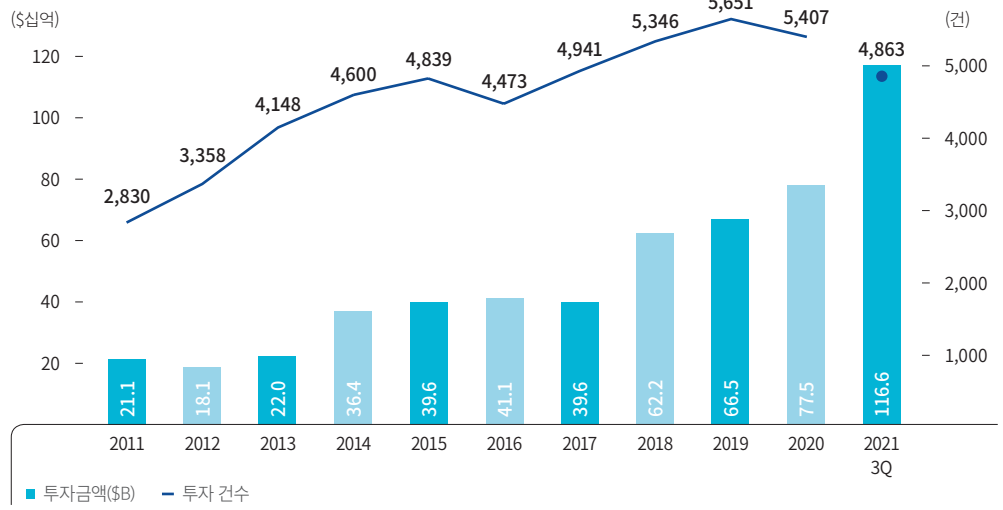
그림 18 미국 VC 메가딜의 산업별 현황



♣ 분야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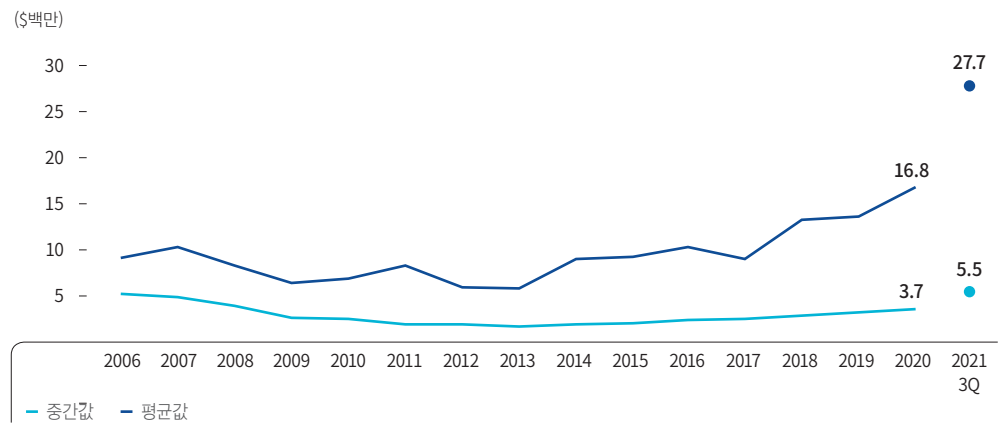
2021년도 3분기까지 B2B 테크 분야는 올해 전체 투자금액의 거의 절반인 1,166억 달러가 4,863건에 투자되었으며,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한 단계는 후기 단계(1,740건)이나 엔젤/시드(1,676건) 및 초기(1,447건) 단계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액의 평균값(중간값)은 약 2억 3천만(5.5백만) 달러로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약 64.9% 및 48.6% 상승하였으며,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평균값(중간값)은 4억 7천만(4천 5백만) 달러로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12.5% 및 125.0%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19 미국 B2B 테크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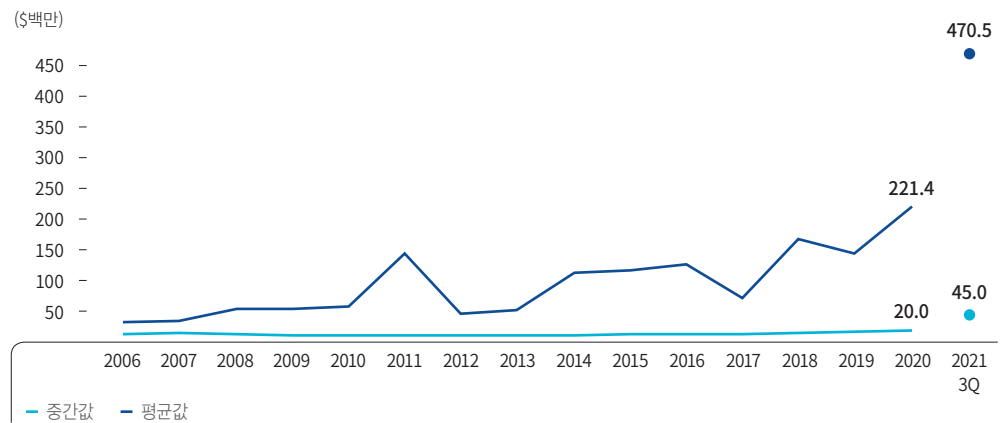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0 연도별 B2B기업 투자금액(상) 및 투자기업 기업가치(하)의 중간값,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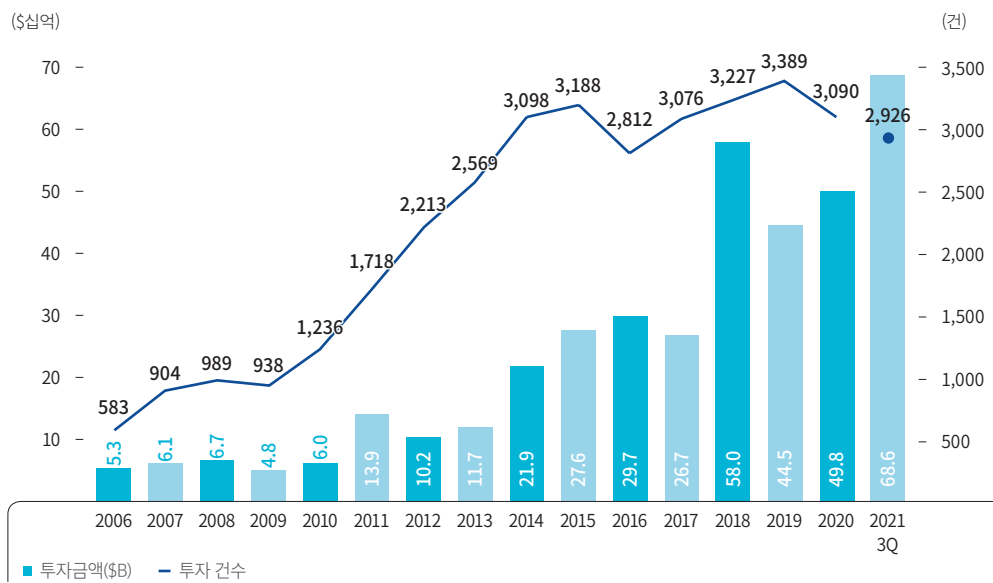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B2C 테크 분야 역시 급격하게 투자 규모가 상승한 B2B 분야와 마찬가지로 2021년 3분기까지 2,926건의 686억 달러가 투자되며 이미 작년 온기 실적을 경신하고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건수 기준으로 엔젤/시드 단계(1,229건), 후기 단계(895건), 초기 단계(802건) 순으로 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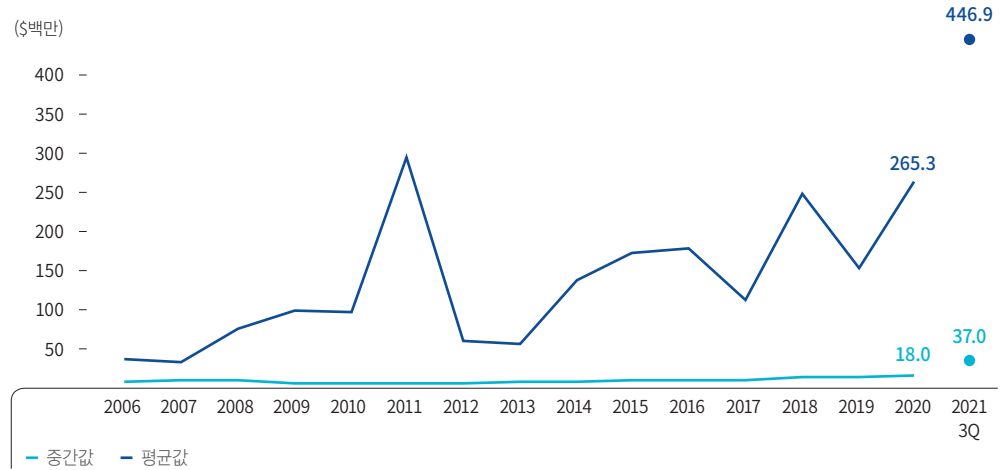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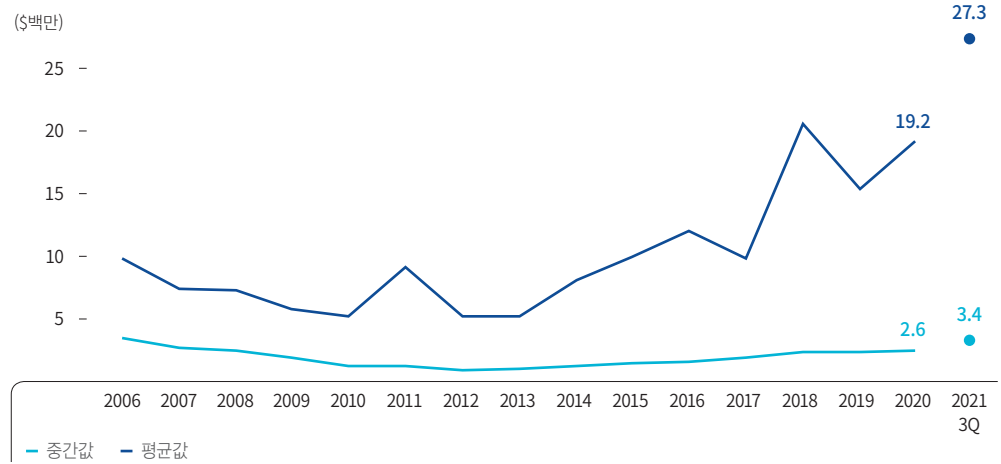
투자금액의 평균값(중간값)은 약 2천 7백 7십만(3백 4십만) 달러로서, 작년 온기 대비 각각 약 42.2% 및 30.8% 상승하였으며,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평균값(중간값)은 약 4억 5천만(3천 7백만) 달러로서 작년 온기 대비 각각 약 68.5% 및 105.6% 상승하였다.

그림 21 미국 B2C 테크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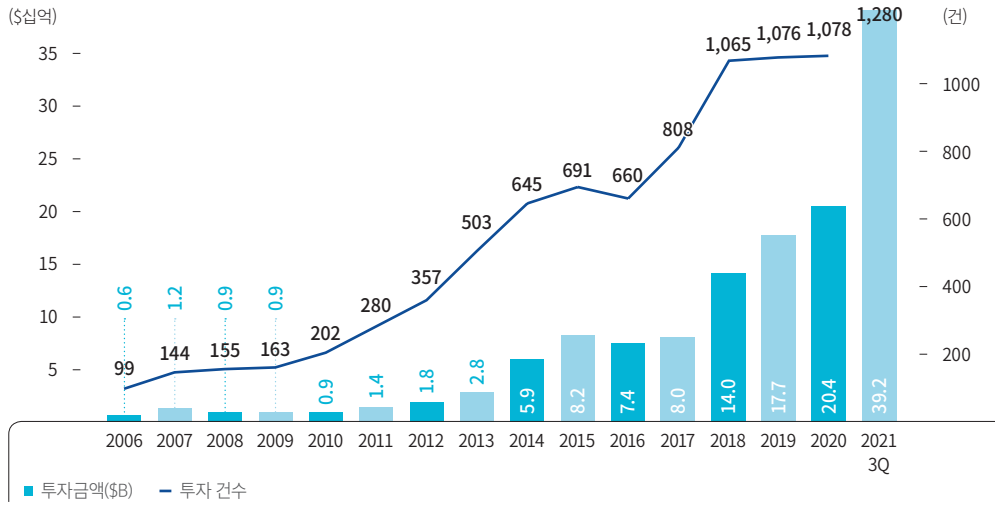
그림 22 연도별 B2C기업 투자금액(상) 및 투자기업 기업가치(하)의 중간값, 평균값



핀테크(Fintech) 분야 역시 2021년 3분기까지 투자금액 및 건수가 각각 392억 달러 및 1,280건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온기 기준 실적을 넘어섰으며, 건수 기준으로 초기 단계(493건), 엔젤/시드 단계(425건), 후기 단계(362건)의 순으로 많은 투자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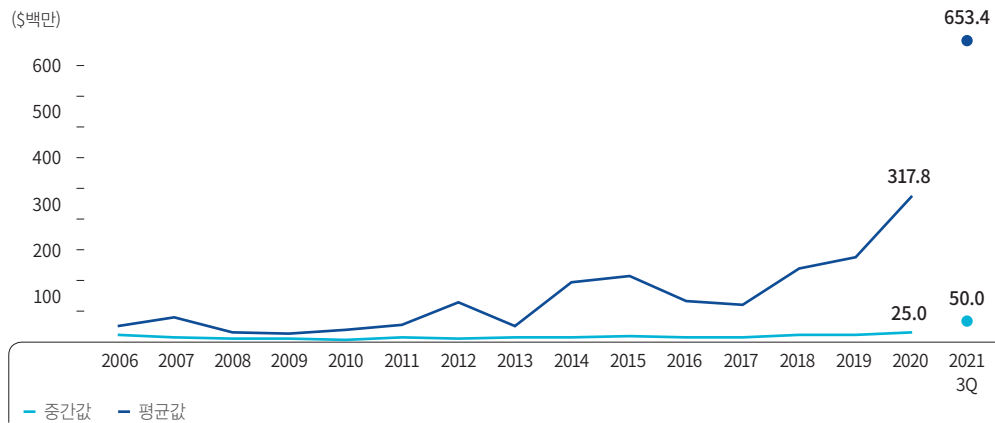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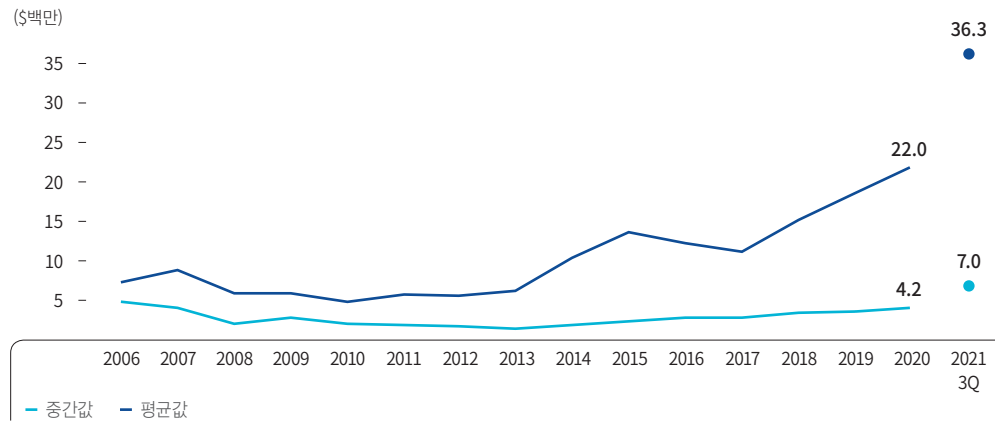
투자금액의 평균값(중간값)은 약 3천 6백만(7백만) 달러로서, 작년 온기 대비 각각 약 65.0% 및 66.7% 상승하였으며,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평균값(중간값)은 약 6억 5천만(5천만) 달러로서 작년 온기 대비 각각 약 105.6% 및 200.0%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림 23 미국 Fintech(핀테크)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4 연도별 Fintech(핀테크)기업 투자금액(상) 및 투자기업 기업가치(하)의 중간값,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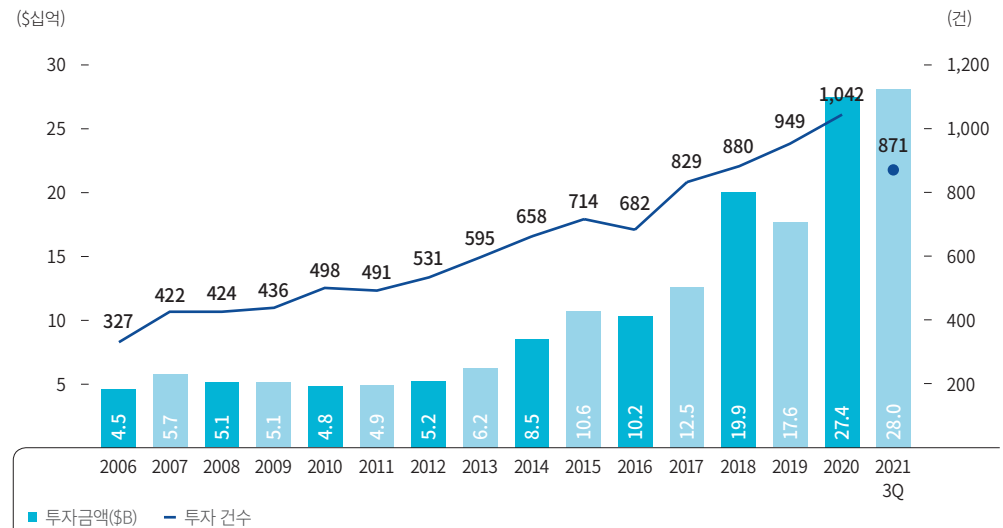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제약/바이오테크 분야는 올 한해 투자금액이 크게 상승한 B2B, B2C, 핀테크 분야와는 달리, 작년 온기 실적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며 871건의 28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건수 기준, 초기 단계(333건), 후기 단계(298건), 엔젤/시드 단계(240건)의 순으로 투자가 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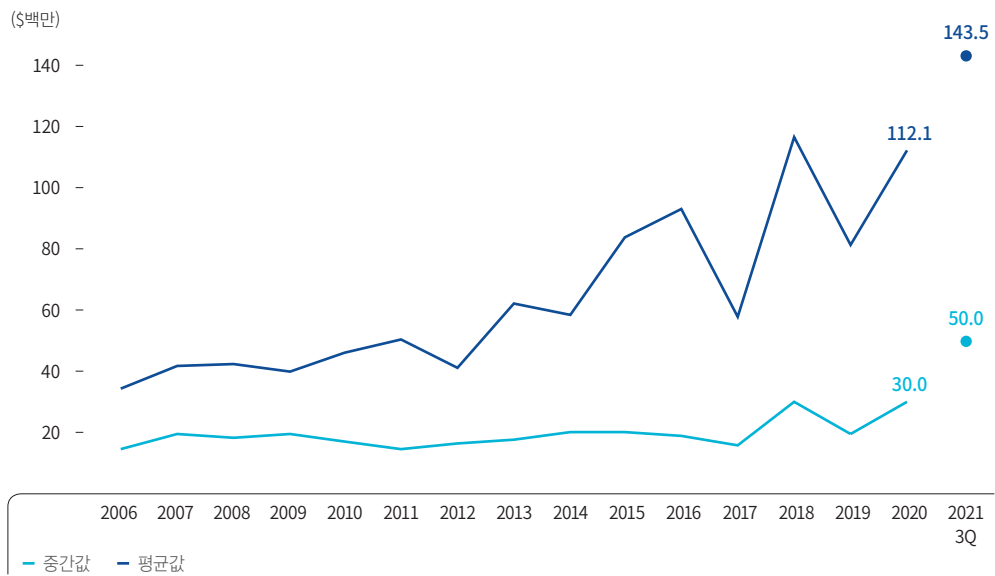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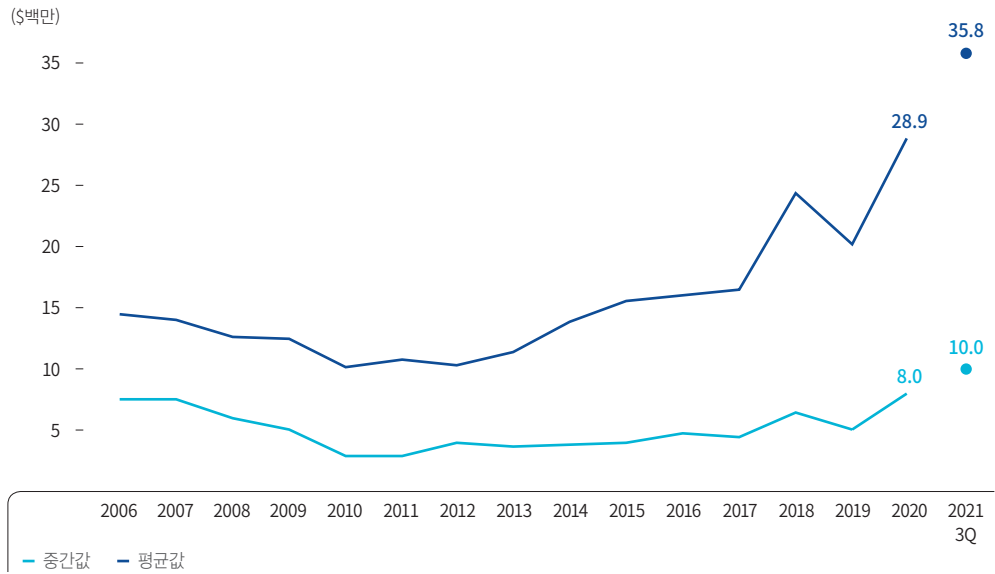
투자금액 및 투자 기업가치 역시 투자 규모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는데, 투자금액의 평균값(중간값)은 약 3천 6백만(1천만) 달러로서, 작년 온기 대비 각각 약 23.9% 및 25.0% 상승하였으며,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평균값(중간값)은 1억 4천만(5천만) 달러로서 작년 온기 대비 각각 약 28.0% 및 66.7% 성장하였다.

그림 25 미국 제약/바이오테크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6 연도별 제약/바이오테크기업 투자금액(상) 및 투자기업 기업가치(하)의 중간값,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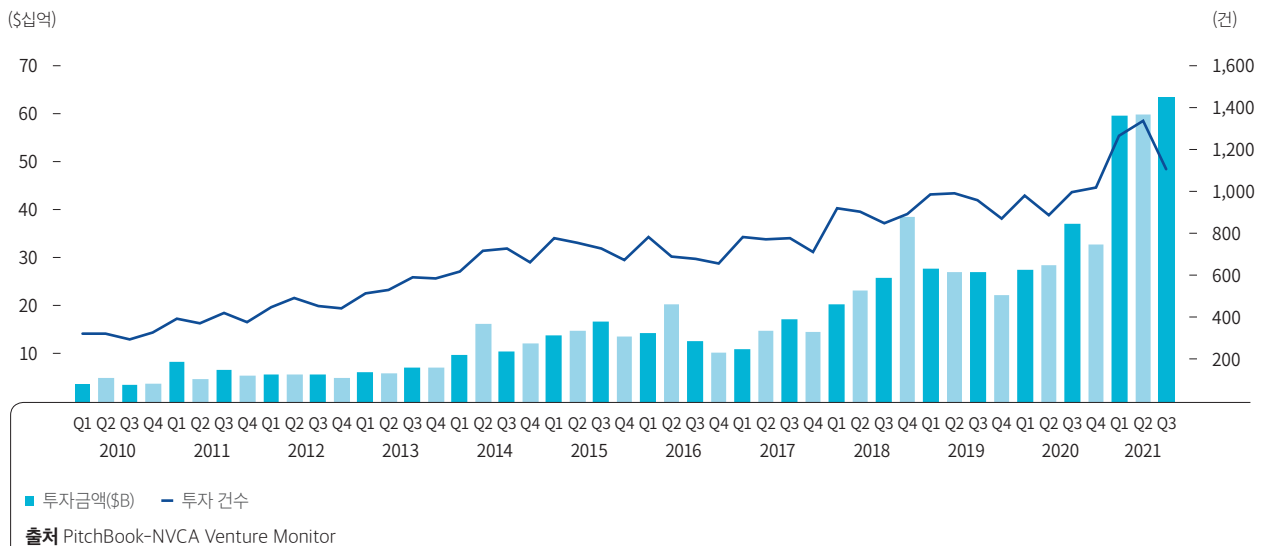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비전통적 투자자들(Nontraditional(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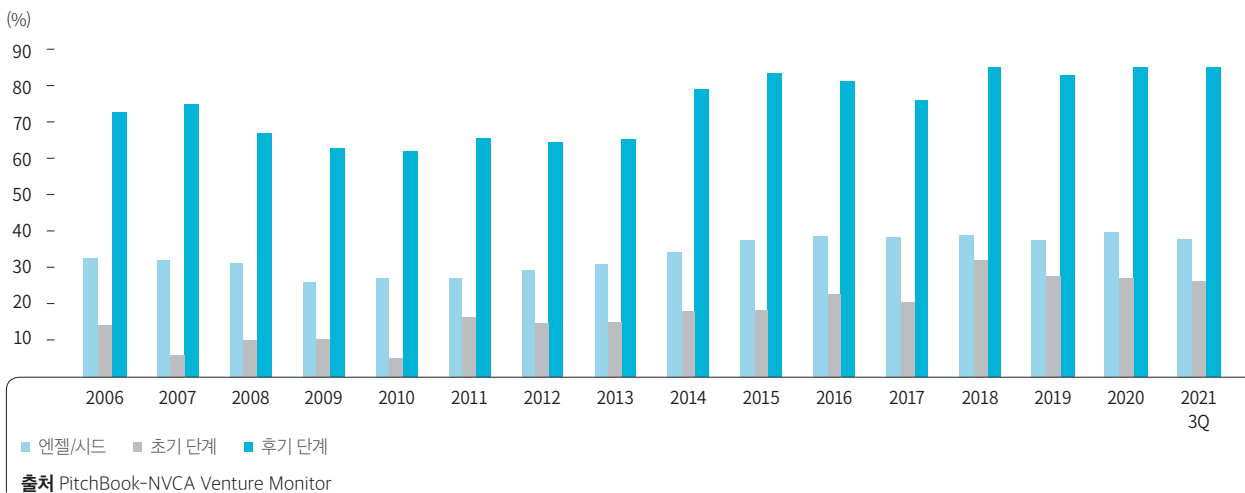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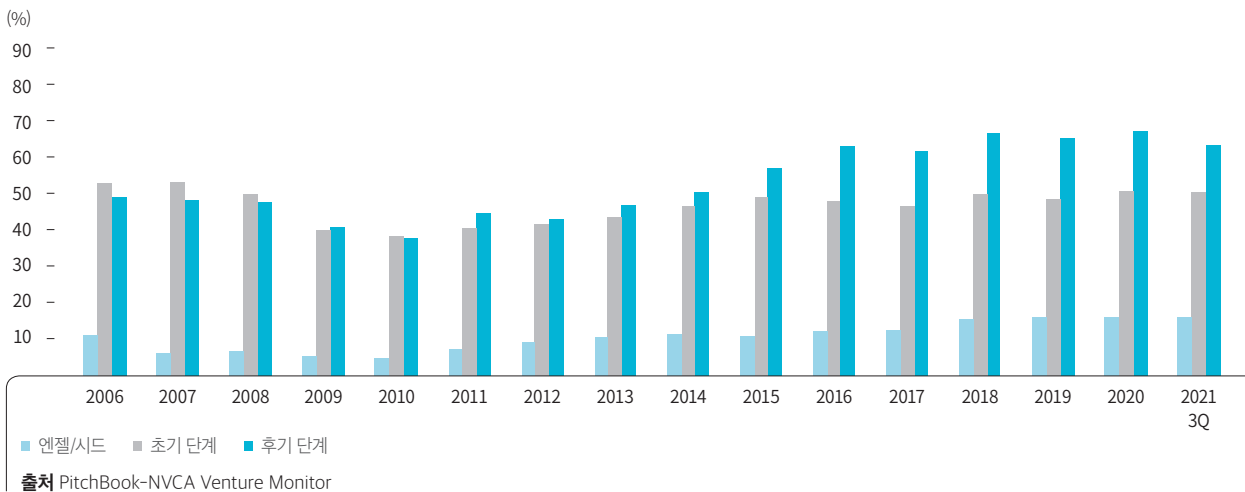
2021년 3분기까지 미국 VC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자는 비전통적인 투자자였다. Tiger Global은 3분기동안 빠른 속도의 딜메이킹을 유지하며 48건의 투자를 완료하였고, Softbank는 동 분기에 Vision Fund 2의 규모가 다시 증가(현재 총 400억 달러)함에 따라 기존의 투자 속도를 유지하였다. 두 거대한 투자자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비전통적인 투자자 그룹 전체가 올해를 포함한 최근의 시장을 주도해오고 있다. 미국 VC 펀드의 미투자자산(dry-powder)이 기록적인 2,2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세계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은 무려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막대한 자본 규모와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빠른 딜메이킹 능력이 결합됨에 따라 이들의 연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분기별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라운드의 투자금액 및 투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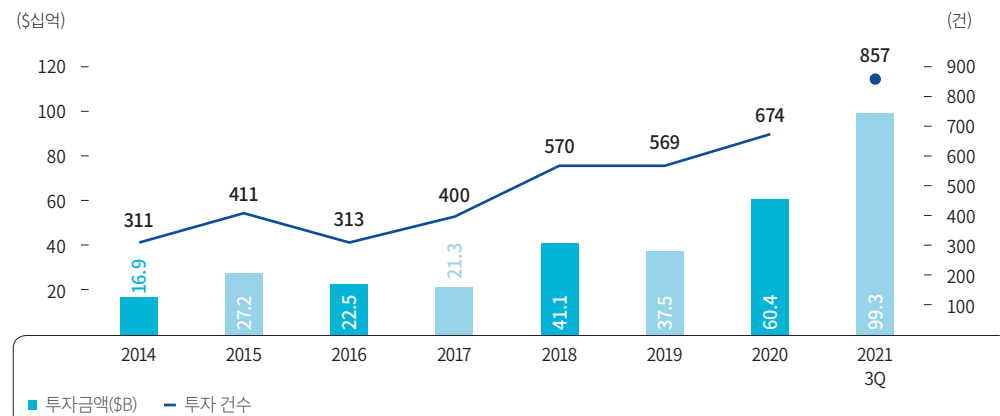
2021년 3분기까지 미국 내 VC 투자의 32.9%(3,717/11,291)에서 비전통적인 투자자의 참여가 있었다. 후기 단계의 투자로 한정하면 이 수치가 63.0%까지 상승하며, 비전통적인 투자자가 참여한 투자의 투자 규모는 거의 1,500억 달러(1,461억 달러)에 이른다.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벤처투자에 몰입하면서 전도유망한 투자 기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 3분기까지 종결된 메가딜 중 비전통적인 투자자가 참여한 투자의 비중은 무려 87.6%에 육박한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한 메가딜의 51.8%는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주도 또는 단독 투자였다는 사실이다. 메가딜에서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위상 강화는 이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본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유연한 투자 조건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28 _____ 단계별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라운드의 비중: 투자건수(상) 및 투자금액(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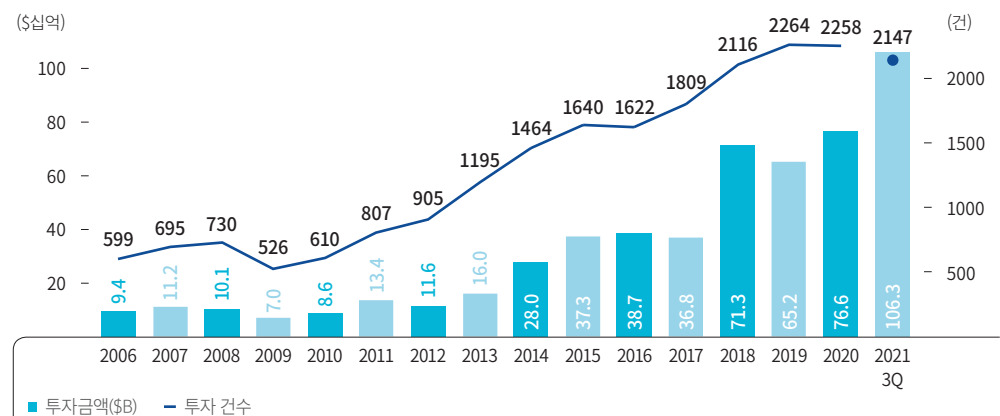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인 크로스오버(Crossover) 투자자들은 상장에 앞서 비상장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의 성장을 포착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3분기까지 990억 달러 규모의 857건의 투자에 참여하였다. 이는 2017년 온기 크로스오버 투자자들의 참여 투자 건수의 두 배에 달하며, 작년 온기에 비해서도 약 27% 성장한 수치이다. 두 번째 유형인 기업 투자자(CVC)들은 초기 단계에 자신들의 투자를 집중하면서 신형 기술 또는 나중에 자신들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통합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3분기까지 1,063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참여한 투자의 54.0%는 시드 또는 초기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29 크로스오버 투자자 참여 투자 라운드의 건수 및 금액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30 CVC 투자자 참여 투자 라운드의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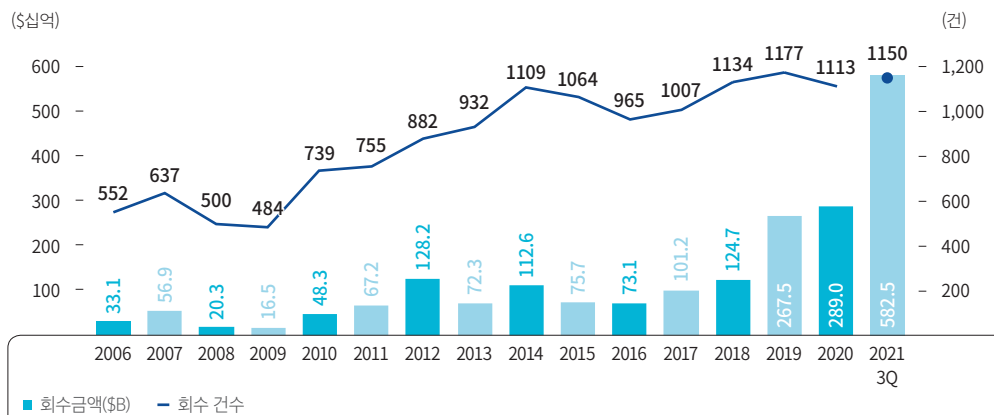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투자 전 기업가치 기준 가치이다.

2021년도에 미국 VC생태계의 회수 활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투자 및 펀드결성 활동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내고 있다. 2021년 3분기까지 1,150건의 5,825억 달러를 회수하면서 이미 작년 온기 실적의 거의 두 배에 근접하였다. 또한 3분기에만 1,872억 달러가 회수되며 올해 2분기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이 수치 역시 2017년 및 2018년의 한 해 회수 금액보다 많은 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림 31 CVC 투자자 참여 투자 라운드의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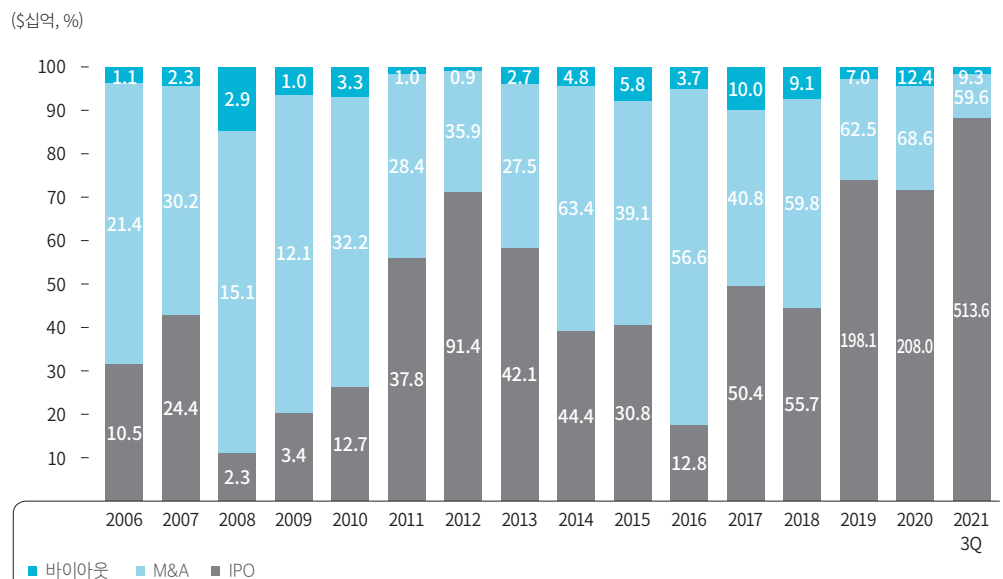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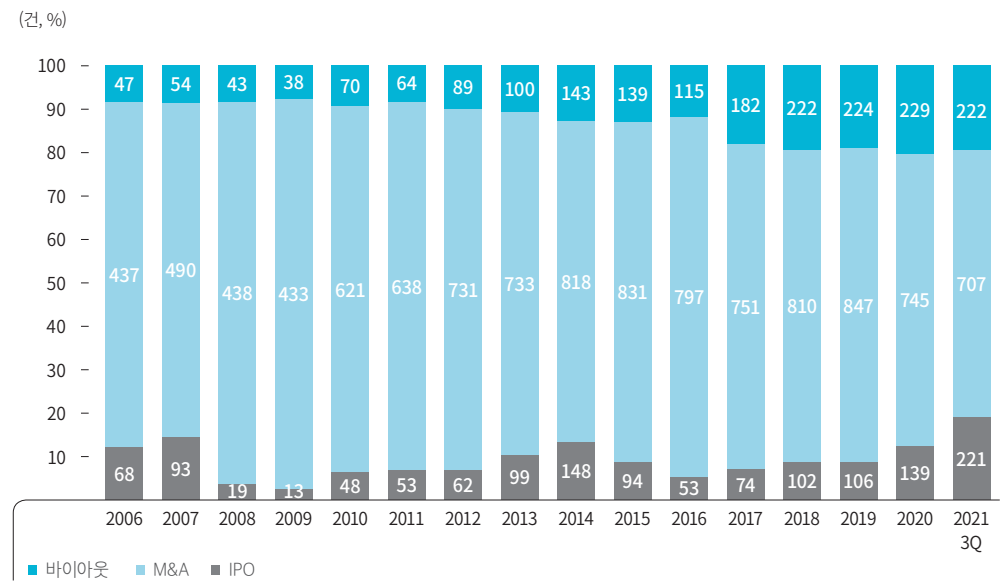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대부분의 회수금액은 IPO(상장)를 통해서 창출되었고 총 회수금액의 88.2%인 5,136억 달러가 IPO를 통해 발생하였다. 3분기에만 93개 기업이 IPO를 하여 올 3분기는 가장 IPO가 활발했던 분기가 되었다. 그중 로빈후드(Robinhood)의 300억 달러 규모의 IPO는 32개 헬스케어 기업 IPO중 가장 대규모의 IPO였다.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IPO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규 IPO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멀티플이 증가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나 경기의 약세로 인한 미래의 기대치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상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신규 IPO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었으며 시장의 하락 시기는 확실히 없기에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IPO러쉬를 예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SPAC을 통한 사업 결합(SPAC 상장)도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SPAC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역M&A 활동이 크게 늘어나 3분기동안 상장 기업 수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최근 들어 IPO가 증가하고 있으나, M&A는 여전히 가장 흔한 회수 수단이며 올 한해 역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M&A를 통한 회수 거래는 평균적인 IPO를 통한 회수에 비해 회수 규모가 훨씬 작는데, 이는 두 유형의 회수 수단에 있어 회수 시점에서의 업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M&A의 경우 주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주요 회수 경로). 최근 들어 M&A를 통한 회수가 지난 10년간 목격한 것보다 벤처의 라이프사이클상 더 빠른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21년에 발생한 대다수의 M&A는 시드 또는 시리즈 A 거래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반면 IPO의 경우 61.1%가 시리즈 C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미국 VC 투자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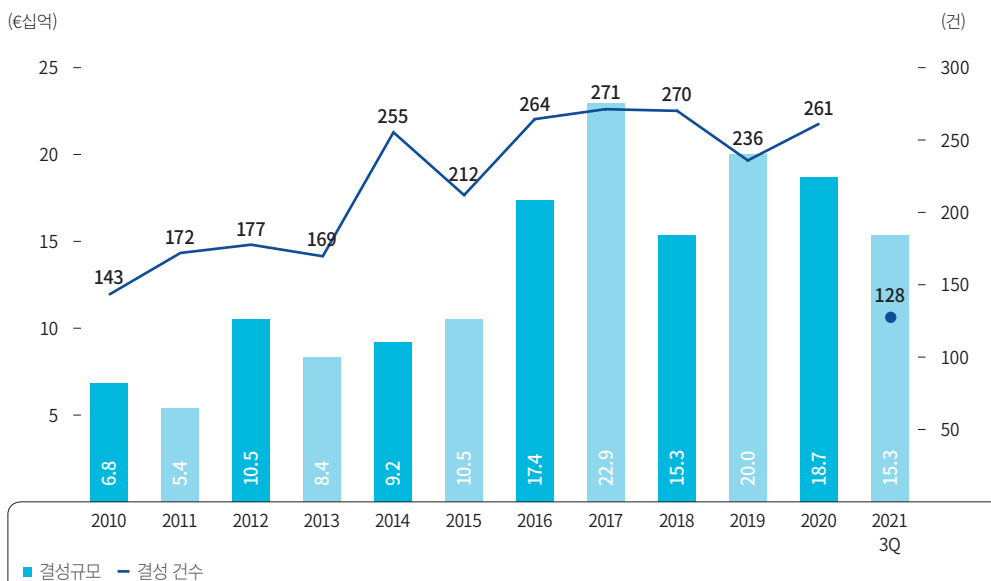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결성(Fundraising), 투자(Deal) 및 회수(Exit)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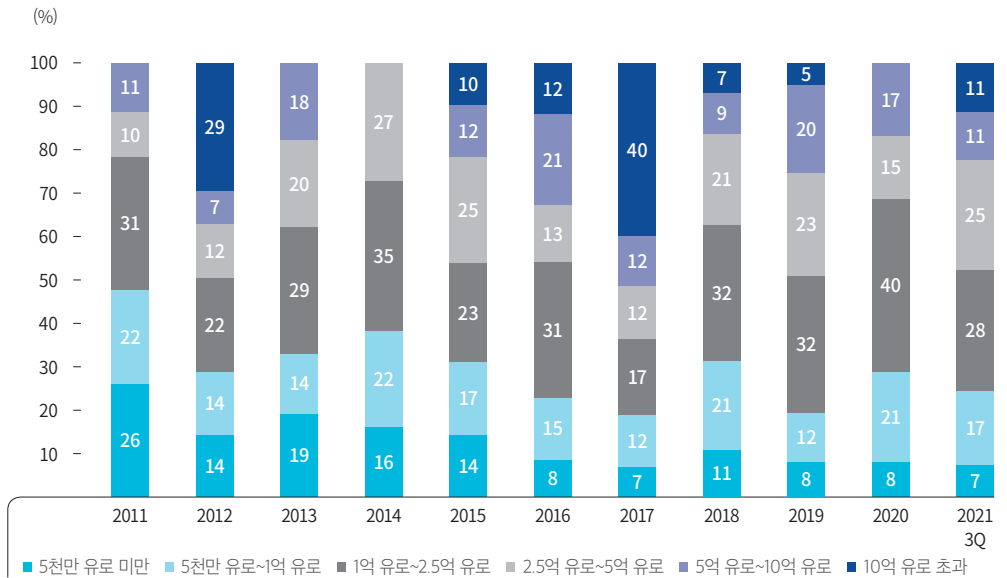
2021년도 3분기까지 유럽의 VC 펀드는 128개 펀드가 153억 유로를 결성하였다. 이에 연말까지 200억 유로의 결성총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역시 미국처럼 펀드 결성에 있어 대형화 추세가 목격되었는데, 결성규모가 10억 유로 이상인 펀드가 전체 펀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복귀하였다. 여기에는 3분기 Index Ventures는 성장 단계에 초점을 둔 결성한 유럽 최대 규모인 17억 유로 규모의 펀드 결성이 기여하였다.

그림 1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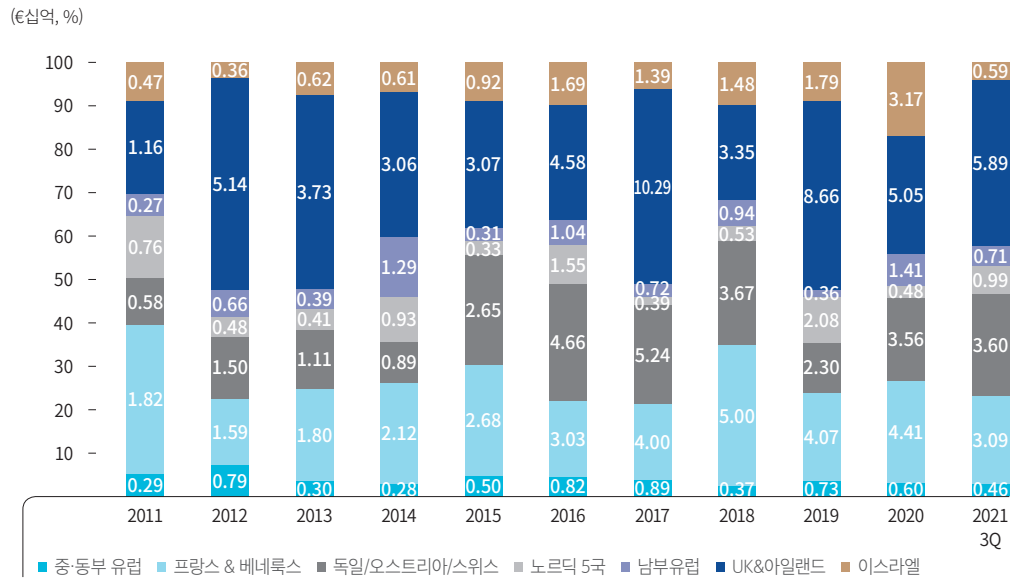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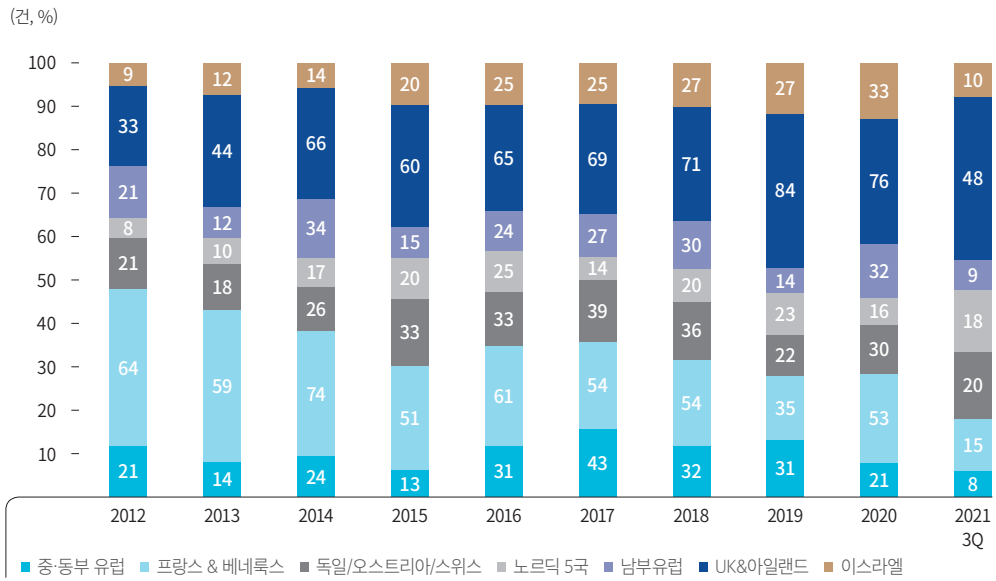
그림 2 결성규모별 유럽 VC 펀드 결성 비중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3분기까지 유럽 지역 중 UK/아일랜드 지역에서 펀드 결성이 가장 활발했다. UK/아일랜드 지역은 유럽 전체 펀드 결성규모의 38.4%인 59억 유로의 결성규모를 보였는데, 브렉시트(Brexit)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유럽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핵심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에 주목할 만한 VC 관련 소식은 벤처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런던 소재 핀테크 기업인 Rapyd가 자사의 벤처캐피탈 조직인 Rapyd Ventures를 설립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자사의 니치마켓에 존재하는 신생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독자적 벤처캐피탈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들이 벤처투자의 진화를 이끌고 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캐피탈 조직을 설립함에 따라 M&A 활동을 통해 기업의 외부자원 활용을 통한(inorganic)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유럽 VC 펀드 지역별 결성 현황(상) 금액 기준(하) 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투자

2021년 3분기까지 유럽의 VC 투자 활동은 7,693건의 거래에 걸쳐 737억 유로가 투자되어 이미 작년 온기 기준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후기 단계 투자가 유럽 내 벤처투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까지 543억 유로가 후기 단계 기업에 투자되며 전체 투자 규모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 규모별로 살펴봐도 2천 5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 거래가 전체 투자 규모의 약 75%가 투자되어 후기 단계의 대형 투자가 유럽의 VC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유럽 VC 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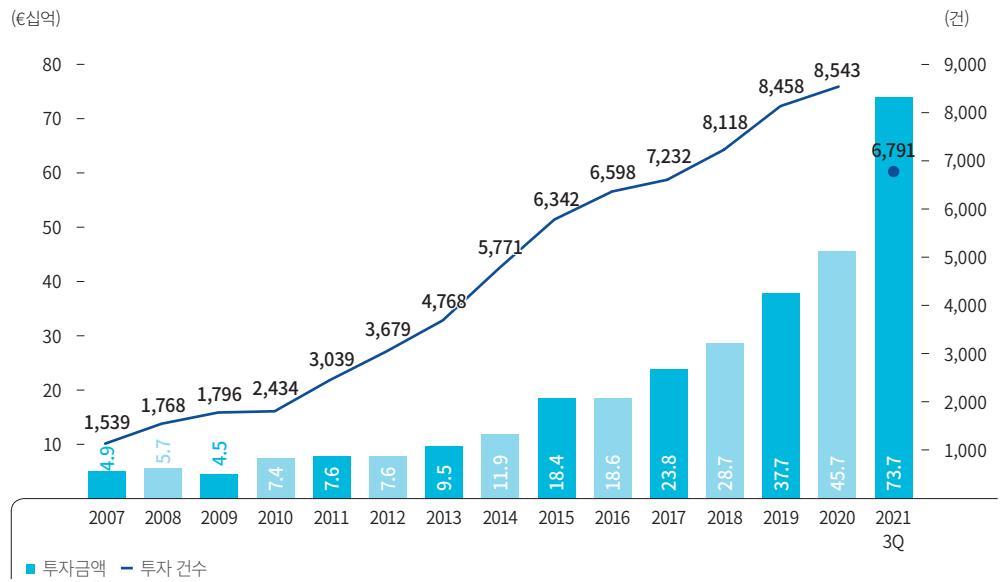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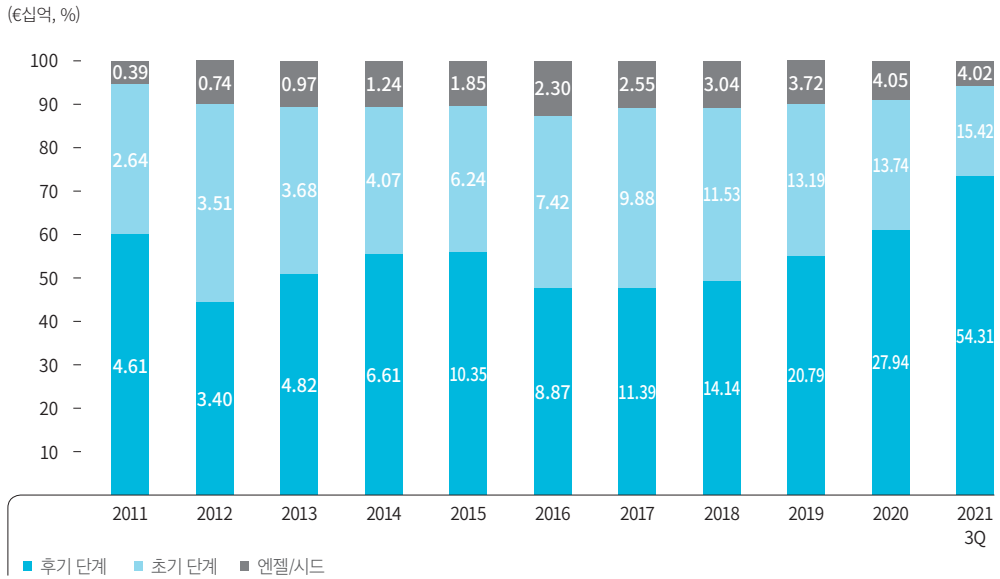


그림 5 유럽 VC 단계별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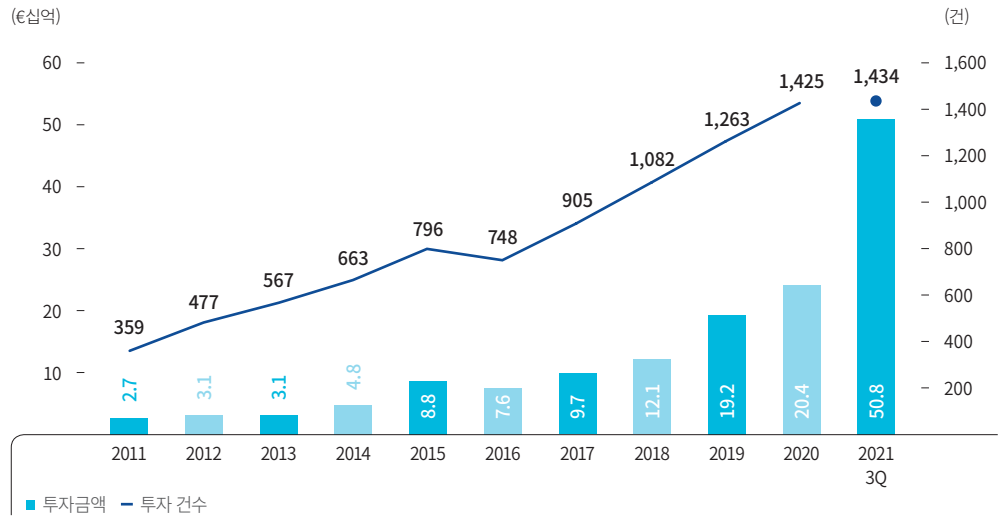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최대 투자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런던에 소재한 금융 서비스 기업인 Revolut로서, 278억 유로의 투자 후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6.729억 유로의 투자를 받았다. 해당 거래는 Softbank Vision Fund II 및 Tiger Global Management가 공동으로 주도하였고, 약 1년 전 투자 라운드에 비해 6배 상승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Revolut는 유럽 내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그룹 중 하나로서, 영국에서 배출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올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Revolut의 이번 투자 라운드는 3분기 핀테크 부문에서 발생한 가장 큰 투자였다.

피투자기업들이 대규모 고용과 기술 인프라를 위한 대형 투자를 통해 야심찬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본을 찾아 나섬에 따라, 5억 유로 이상의 대형화된 거래가 점차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3분기에는 일련의 대규모 거래가 마감되면서 후기 단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캐시 런웨이(cash runway)를 연장시킬 수 있었는데, 40억 유로의 투자 후 기업가치로 6억 유로의 투자 라운드를 종결한 에스토니아 소재의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기업인 Bolt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가상의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코로나 이동 제약에 대처함에 따라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 흐름이 코로나19 기간에도 건강함을 유지하였다. 비록 코로나19의 초기에 대면 미팅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역외 거래 규모 수치는 대면 미팅이 어려워도 해외 소재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참여한 유럽 VC 거래 규모는 2021년 3분기까지 이미 새로운 연간 기록이 될 508억 유로를 달성하였고, 유럽 내 모든 거래의 21.2%에 미국 투자자가 참여하였다.

● 추가적인 펀딩 없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간

그림 6 미국 투자자가 참여한 유럽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3분기까지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UK/아일랜드(208.5억 유로, 32.0%),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131.6억 유로, 20.2%), 프랑스/베네룩스(111.6억 유로, 17.1%), 노르딕5개국(93.5억 유로, 14.3%)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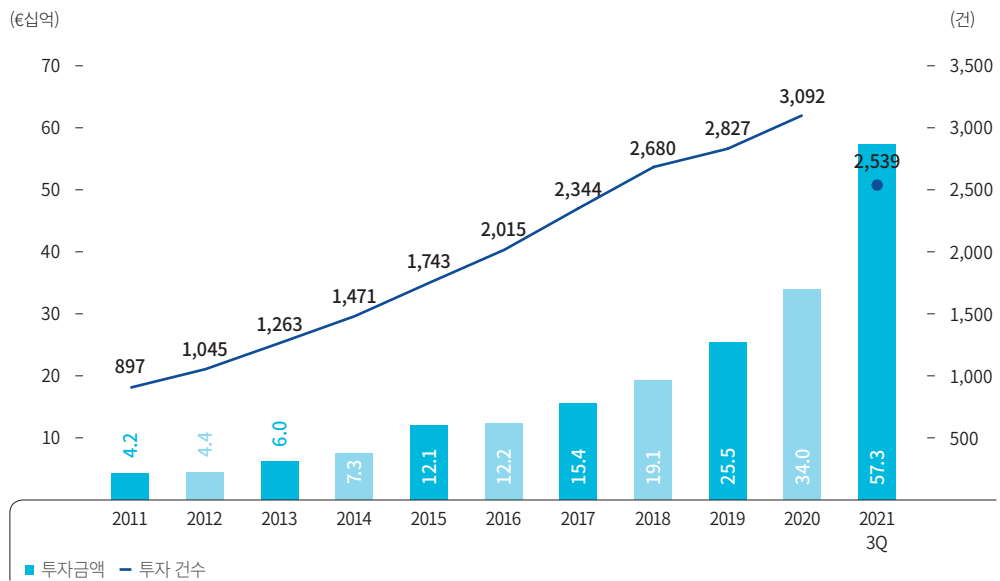
♣ 비전통적 투자자(Nontraditional(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과거 10년간 유럽 VC 생태계에서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한 투자의 규모는 573억 유로로서, 이미 새로운 연간 기록을 달성하였다. 2021년의 투자 증가 추이는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성장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본이 이들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산업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벤처캐피탈과 연계된 기술 기반 산업은 유망한 성장과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비전통적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풍부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신규 진입자들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 방안으로서 더 많은 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 규칙을 정비하며, 새로운 기술 비자를 발급하려는 등의 움직임에서 확인되었듯,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벤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런던 소재의 가상 이벤트 플랫폼 기업인 Hopin이 66억 유로의 투자 후 기업가치로 3.805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이는 3분기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투자였다. 해당 투자는 CVC로서 Salesforce Ventures 및 Slack Funds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와 스타트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사용자 기반을 키우려는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전통적인 투자자의 투자는 종종 플랫폼 간의 통합으로 이어지는데,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생 기업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비전통적인 투자자들 또한 E-Commerce 산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다. 온라인 DIY(Do-It-Yourself), 홈 및 가드닝 소매업체인 Mano-Mano가 3분기 2.961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며 비전통적인 투자자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림 7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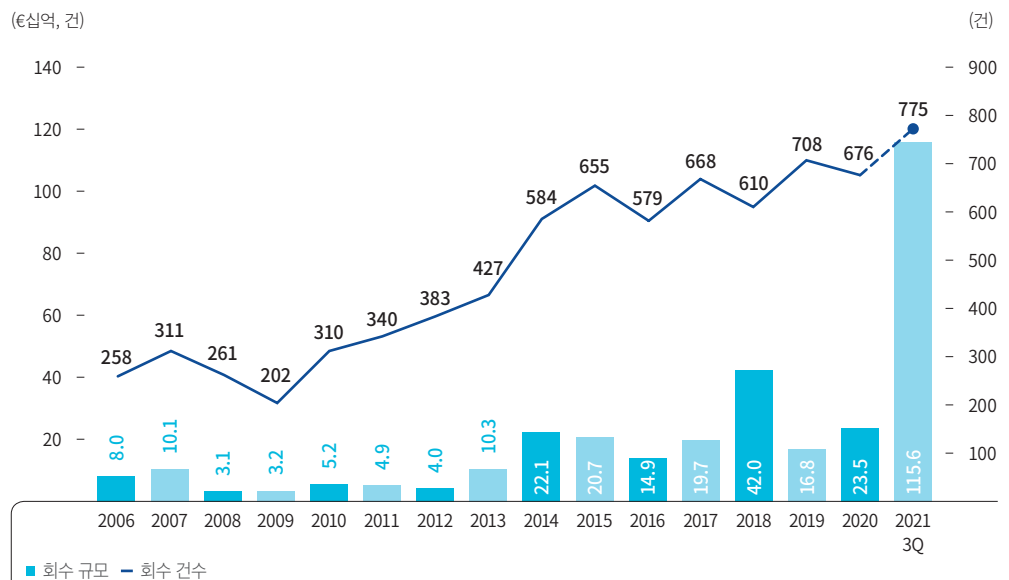
2021년 3분기까지 936건의 1,156억 유로라는 놀라운 규모의 회수가 발생하였는데, 기존의 연간 최고 회수 기록을 이미 올해 2분기 안에 돌파하였다. 전체 회수 거래 중 IPO를 통한 회수 규모가 994.7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체 회수 규모의 85.8%를 차지하였고, M&A가 145.7억 유로로 12.6%를 차지하였다.

3분기 가장 큰 회수 거래는 스포츠 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인 Sportadar(NASDAQ: SRAD)가 250억 유로의 기업가치로 IPO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 및 기술이 스포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의 변화는 고성장 영역을 만들고 기업들이 발전하여 결국 새로운 부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빅 테크 기업의 기록적인 수익은 기술 부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은 팬데믹으로 인한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IPO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IPO, DPO (Direct Public Offerings), SPAC을 통한 역합병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상장이 2021년도에 발생하였다.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35건의 상장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의 3배 이상인 수치이다. 3분기 동안 핀테크 회사인 Wise(LON: WISE)의 DPO가 102억 유로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자동차 소매업체 Cazoo(NYSE: CZOO)와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개발업체인 Lilium(NASDAQ: LILM)은 각각 투자 전 기업가치 5.5십억 유로 및 2.1십억 유로로 SPAC을 통해 상장한 것을 주요 상장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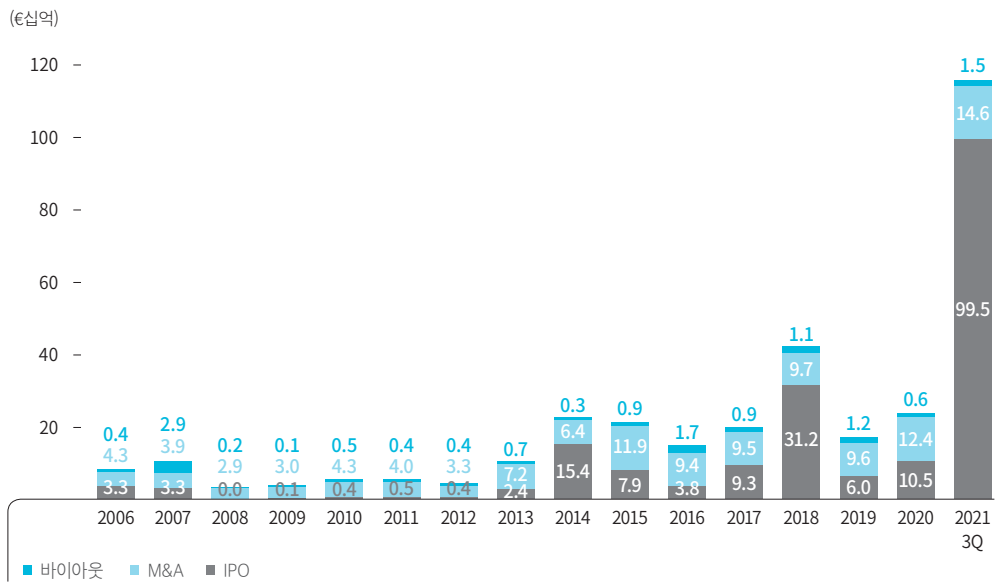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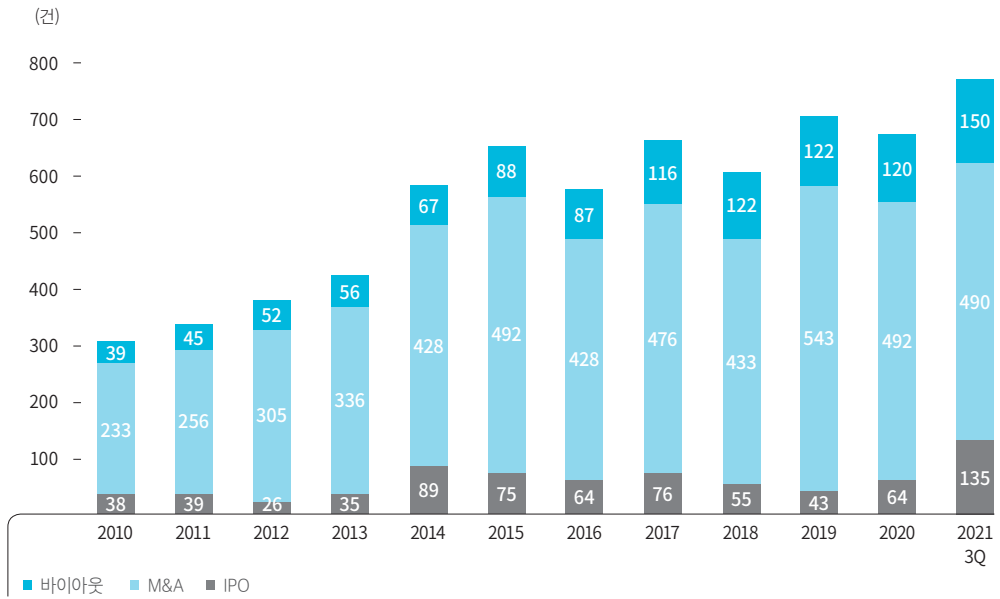
지역별 회수 동향을 살펴보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지역이 총 회수 규모의 46.1%(533.1억 유로), UK/아일랜드가 35.4%(408.7억 유로), 이스라엘이 9.9%(114.2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그림 8 유럽 VC 투자 기업 회수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그림 9 유럽 VC 투자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 건수(상) 금액(하) 합계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State of Venture Report, 2021년 3분기)

• State of Venture Report는 CB 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 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투자

2021년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9,363건의 1,582억 달러가 투자되며, 올해 3분기까지 총 24,951건의 4,377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3,210건의 723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아시아가 3,815건의 502억 달러, 유럽이 1,590건의 242억 달러, 라틴아메리카가 255건의 53억 달러, 캐나다가 212건의 29억 달러, 그리고 기타 지역이 281건의 3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3분기까지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메가라운드 투자 건은 409건으로 총 913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93건의 405억 달러, 아시아가 128건의 311억 달러, 유럽이 54건의 129억 달러, 라틴아메리카가 15건의 36억 달러, 캐나다가 10건의 16억 달러, 기타 지역이 9건의 16억 달러의 메가라운드 투자 실적을 보였다. 올해 현재까지 평균(중간) 거래금액은 2천 5백만(4백만)달러로서, 전년 동기 기준 1천 6백만(3백만)달러에 비해 약 56.3%(33.3%) 성장하였다.

표 1 3분기 글로벌 투자 유치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투자자
AVIC Lithium Battery	중국	전기전자	\$1,858M	비공개
Yanolja	한국	인터넷	\$1,700M	SoftBank Group
Databricks	미국	인터넷	\$1,600M	Tiger Global Management, T.RowePrice, BlackRock, AndreessenHorowitz 등
Articulate	미국	인터넷	\$1,500M	General Atlantic, Blackstone, ICONIQ Growth
Gopuff	미국	모바일 & 통신	\$1,000M	Blackstone, Adage Capital Management, Eldridge, GuggenheimInvestments, MSDPartners
Gorillas	독일	모바일 & 통신	\$950M	Holdings, Delivery Hero, CoatueManagement, A-Star Group
FTX	홍콩	인터넷	\$900M	New Enterprise Associates, InsightPartners, Lightspeed, VenturePartners, Sequoia Capital 등
Revolut	영국	모바일 & 통신	\$800M	Tiger Global Management, SoftBank Group, Schroders
Chime	미국	모바일 & 통신	\$750M	Sequoia Capital, Tiger Global Management, General Atlantic, SoftBankGroup 등
Bolt	에스토니아	모바일 & 통신	\$713M	Sequoia Capital, G Squared, TekneCapitalManagement, D1CapitalPartners 등

출처 CB Insights State of Venture Report Q2 2021

♣ 유니콘

2021년 3분기에는 127개의 유니콘이 탄생하며, 2021년 3분기 현재 누적 유니콘 기업 수는 848개에 도달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69개의 유니콘을 신규 배출하며 누적 유니콘 수 429개를 기록하였고, 아시아가 30개 및 271개, 유럽이 15개 및 100개, 라틴아메리카가 5개 및 22개, 캐나다가 4개 및 16개, 기타 지역이 4개 및 10개의 2021년 3분기 기준 신규 유니콘 및 누적 유니콘 수를 기록하였다.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중국의 ByteDance(\$1,400억), 미국의 Stripe(\$950억), SpaceX(\$740억) 순으로 나타났고, 2021년 3분기 기준 신규 유니콘 기업의 경우 홍콩의 FTX(\$180억), 영국의 ZEPZ(\$50억), 프랑스의 Soare(\$43억)의 순으로 나타났다.

♣ 회수

2021년 3분기에는 총 2,598건의 M&A, 206건의 IPO가 발생하며, 2021년 3분기 누적 총 7,704건의 M&A 및 670건의 IPO 회수 건수를 기록하였다. 2021년 3분기에 IPO에 성공한 대표적인 딜은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레스토랑 소프트웨어 업체인 Toast(\$17.5B), 한국의 게임 업체인 Krafton Game Union(\$17.3B), 스위스의 스포츠 장비 업체인 On(\$11.3B), 미국의 CRM 기업인 Freshworks(\$101.B) 등이 있다. 대표적인 M&A 회수 거래로는 미국의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및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업체인 MailChimp(\$12.0B), 미국의 신약개발 기업인 BioLegend(\$5.2B), 인도의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 회사인 BillDesk(\$4.7B), 미국의 의료장비 업체인 Maskco Technologies(\$4.4B) 등이 있다.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1년 09월 30일 기준)

2021년 9월 30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배출한 848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2조 7,48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된 기업은 총 11개*이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옐로모바일, 위메이크프라이스, 컬리, 무신사, GP클럽, 엘앤피코스메틱, 에이프로젠, 두나무, 쏘카, 야놀자가 존재하며 약 247억의 기업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총 38개로, 미국 18개, 중국 8개, 영국 3개, 홍콩 및 인도가 2개, 그리고 호주, 브라질, 독일, 싱가포르, 스웨덴이 각각 1개의 데카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 가치 총계
미국	423	1,383.49
중국	165	544.08
인도	41	137.29
영국	33	142.97
독일	19	49.4
이스라엘	18	28.42
프랑스	17	33.61
캐나다	16	38.83
브라질	13	57.9
싱가포르	12	29.2
한국	11	24.69
홍콩	7	34.45
호주	6	49.31
일본	6	8.82
네덜란드	5	14.3
인도네시아	4	14.7
멕시코	4	14.2
스웨덴	4	58.08
스위스	4	5.6
아일랜드	3	6.2
스페인	3	3.6
아랍에미리트	3	4.5

출처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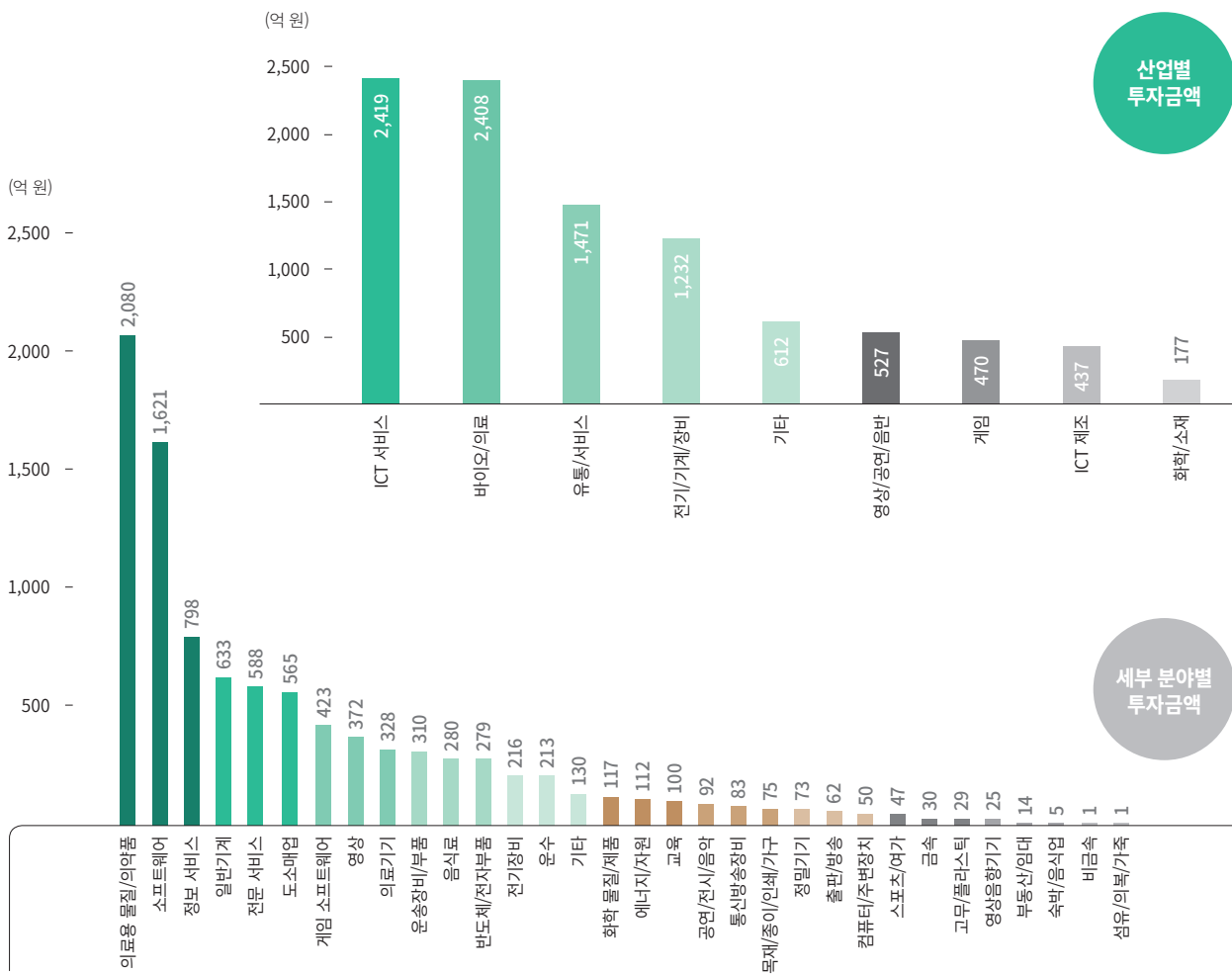
투자 산업 트렌드 /

해당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3분기(7~9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533개(12.8%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9,752억 원(41.5%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ICT 서비스(2,419억 원, 19.5%YoY), 바이오/의료(2,408억 원, 14.0%YoY)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2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두 업종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49.5%로 연초 이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기계/장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3.5배가 증가한 1,232억 원이 투자된 반면 화학/소재는 66.1% 감소한 177억 원을 기록하며, 업종 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림 1 2021년 3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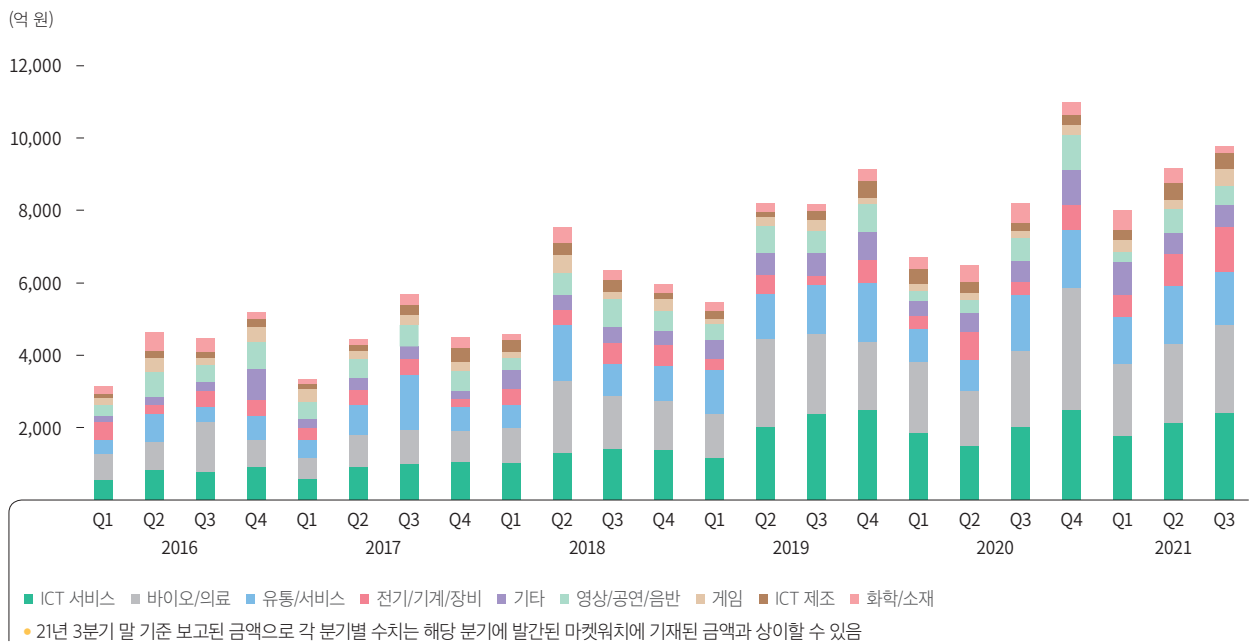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18.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의료로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이 26.8억 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전기/기계/장비(24.2억 원, 222% YoY), 게임(22.4억 원, 80.2% YoY) 순이었다. 두 업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이 각각 16.7억 원, 10억 원이 증가하였다. 화학/소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감소하며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14.8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7건으로 직전 분기와 동일한 건수를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건 감소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웨어러블 로봇 생산, 인공위성 발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림 2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지난 5년간 산업별 투자 규모 추이를 분기 기준 시계열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가 타 산업 대비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16년도 1분기 3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은 53.7%였으며, 해당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18년도 2분기 이후 6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표 1 2021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억원)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 합계	9,752.4	533	18.3
ICT서비스	2,419.2	159	15.2
소프트웨어	1,621.1	100	16.2
정보서비스	798.1	59	13.5
바이오/의료	2,408.0	90	26.8
의료용물질/의약품	2,079.9	77	27.0
의료기기	328.1	13	25.2
유통/서비스	1,471.3	88	16.7
전문서비스	588.1	33	17.8
도소매업	564.8	44	12.8
운수	213.4	5	42.7
교육	100.0	5	20.0
숙박/음식업	5.0	1	5.0
전기/기계/장비	1,231.8	51	24.2
일반기계	632.8	24	26.4
운송장비/부품	309.6	10	31.0
전기장비	216.4	13	16.6
정밀기기	73.0	4	18.3
기타	611.6	36	17.0
음식료	279.5	12	23.3
기타	130.0	12	10.8
에너지/자원	112.0	5	22.4
목재/종이/인쇄/가구	75.0	5	15.0
부동산/임대	14.0	1	14.0
섬유/의복/가족	1.0	1	1.0
영상/공연/음반	526.6	47	11.2
영상	371.8	35	10.6
공연/전시/음악	92.4	10	9.2
출판/방송	62.4	2	31.2
게임	470.1	21	22.4
게임소프트웨어	423.0	19	22.3
스포츠/여가	47.1	2	23.6
ICT제조	436.5	29	15.1
반도체/전자부품	278.5	20	13.9
통신방송장비	83.0	4	20.7
컴퓨터/주변장치	50.0	3	16.7
영상음향기기	25.0	2	12.5
화학/소재	177.4	12	14.8
화학물질/제품	116.7	8	14.6
금속	30.0	1	30.0
고무/플라스틱	29.4	2	14.7
비금속	1.3	1	1.3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표 2 2021년 3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ICT서비스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개인용 콘텐츠 플랫폼 #여행중개플랫폼 #쇼핑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Si기반 STT서비스 #채팅상담솔루션 #장애인인사관리시스템 #뇌분석 소프트웨어 #P콘텐츠 및 상품거래 플랫폼 #시뮬터 #치매 디지털 치료제 #모빌리티플랫폼 #자율주행솔루션 #암호화 데이터 플랫폼 #숙박 중개/관리 솔루션 #온라인 중고장터 #다크웹 탐지/분석 솔루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AI API #AR기반 원격회의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솔루션 #영어교육플랫폼 #모바일 소셜 데이팅 플랫폼 #아이돌봄 매칭 플랫폼 #보험 SaaS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 신차구매 플랫폼 #Si기반 희귀질환 진단 #보험솔루션 #디지털 송금 플랫폼 #온라인 자산관리
바이오/의료	#피부암 진단기기 및 진단솔루션 #HMOs #고분자 필터 #저분자 희귀질환 치료제 #저분자 항암제 #나노입자 의약품 #박테리오파지 장질환 치료제 #지속형 바이오 의약품 #면역항암치료제 #ADC기반 신약 #자가면역치료제 #조로증치료제 #Si약물설계플랫폼 #디지털치료제 #NK세포치료제 플랫폼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이중항체플랫폼 #근육희귀질환 치료제 #안과질환 유전자 치료제 #초소형 레이저 의료기기 #체내 이식형 생분해성 의료제재 #안과질환 치료용 전기자극 의료기기 #수면질환 진단/분석 플랫폼 #무절제 수술로봇
유통/서비스	#모바일 광고플랫폼 #면역항암치료제 #특허수익화 서비스 #명품거래 플랫폼 #셀프 광고플랫폼 #축산물 유통/판매 #간병인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플랫폼 #프리미엄 한우 유통 #이커머스 풀필먼트 #새벽배송 및 풀필먼트 #E-스포츠 대회 및 교육
전기/기계/장비	#무윤활 회전축 밀폐장치 #PCB 가공용 마이크로비트 및 자동차용 모터샤프트 #AMOLED Mask 인장용접기 #웨어러블로봇 #조정밀 광학렌즈 #F&B로봇 #자동차 초음파 센서 #모빌리티용 수소역학 및 저장 #소형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및 발사서비스 #초소형 전기차 #특수기능성 폴리머시트 #바나듐레독스플로우배터리 #폴더블디스플레이 폴딩검사장비
기타	#성분재조합 건강기능식 제품 #신선HMR #중소형 태양광 설비 보유/운영 #가구판매 및 온라인 홈퍼니싱플랫폼
영상/공연/음반	#CG/VFX 및 광고대행 #웹소설 및 웹툰제작
게임	#콘솔게임 #샌드박스 게임 #모바일 게임
ICT제조	#자동차 카메라용 펌리스 #스마트미러링
화학물질/제품	#건강기능식품 및 마이크로니들 패치 시스템

출처 한국벤처투자

